



KEPCO

2026 May
Vol.635

지향

COVER STORY 우주를 향해 열린 창	4
SPECIAL THEME 01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 '에너지 안보' 02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 그리고 한전 03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6
TRANS : MISSION 에너지 데이터의 디지털 신경제, AMI가 여는 '지능형 전력 세상'	14
이야기 전력사 한성전기회사 설립으로 희망을 꿈꾸다	18
SIGHT 세련되거나 유서깊거나, 중부전력지사의 전력설비들	20
KEPCO NEWS	24



KEPCO

2026 MAY VOL.635

통권 635호 2026년 5월호(월간)
등록번호 나주 마00003
발행일 2026년 4월 30일
발행인 김동철
편집인 권정주
편집 한국전력공사 홍보처 (061)345-3115, 3125
주소 (우)582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기획·디자인 ㈜이팝
인쇄 한결엠
창간일 1961년 8월 31일

우주를

향해

열린

창

우리는 오래전부터 별을 올려다보며 길을 찾고, 의미를 읽으며,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다. 별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이끄는 지향이자, 우주와 나를 연결하는 창이다.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 역시 어린 시절 별을 바라보며 세상에 대한 질문을 품었다. 그 작은 궁금증은 결국 우주를 향한 탐구로 이어졌다. 이 글은 별을 통해 인간이 어떤 방향을 꿈꾸고, 무엇을 지향해왔는지를 따라가며, 우리에게 우주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되묻는다.

글 이승준 한국항공대학교 인문자연학부 교수

별을 바라보다 떠오른 질문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은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나서 자랐다. 그는 브루클린의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며 도대체 그것들이 무엇인지 몹시 궁금했다. 어른들에게 별은 단지 '하늘에서 반짝이는 빛'일 뿐이었다. 도서관에 달려가 '스타들(Stars)'에 관한 책을 달라고 하자 사서는 당시 유명했던 배우, 클라크 게이블 사진이 실린 그림책을 내놓았다. 그는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그저 평범하게 취급받는 별들이 불쌍하기까지 했다. 그가 '원하는' 스타들에 관한 책을 읽었을 때, 그의 눈앞에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진 장대한 세상이 펼쳐졌다. 게오르그 루카치는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는가?"라고 말했다. 그에게 별은 길 없는 세계의 좌표, 떠도는 앞과 삶의 길잡이였다. 실제로 아라비아의 카라반들에게 별은 길 없는 막막한 사막에서 길잡이 노릇을 했다. 그들은 광활한 하늘에 펼쳐진 별들의 지도를 보며 사막을 가로질러 길을 찾아갔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칼립소의 섬을 떠나 뗏목을 타고 이타카로 귀향할 때, 그를 인도한 것도 별들이었다. 오디세우스는 목숨을 건 모험을 마치고, 목동자리와 큰곰자리를 보며 귀향의 뜻을 올렸던 것이다. 그때 하늘과 땅, 우주와 인간의 삶은 하나의 질서 안에 연결되어 원을 그리며 움직였다. 우주는 집과 같아서, 그 어디에서나 낯설어지는 법이 없었다.

예술과 사유 속에 새겨진 별

별을 소재로 한 작품도 여럿이다. 빈센트 반 고흐의 눈에서 별은 새롭게 빛났다. <별이 빛나는 밤>에서 하늘은 일렁이며 해일의 바다처럼 격동하고, 그 위에서 별들은 폭발하듯 빛을 발하며 소용돌이친다. 정열과 고뇌, 희망과 절망, 고독과 사색, 불안한 상승과 찬란한 몰락의 정후가 그 격동 속에서 춤춘다. 루카치의 별이 우주와 인간이 화해를 이루

는 세계의 상징이었다면, 고흐의 별은 그 화해가 무너진 자리에서 혼자 떠오르는 불빛이었다. 이미 대지와 결별한 채, 아득히 먼 하늘에서 강렬하게 빛나는 별은 현실에서 잡을 수 없는 이상의 별이다. 그것은 저 너머 하늘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만 빛난다. 해서 그의 붓질이 더욱더 강렬하고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니체가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그대 안에 혼돈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했듯이, 고흐는 온몸으로 혼돈의 별을 품고 살았다.

윤동주의 <별>은 내면에 침잠해 고흐히 빛을 발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하고 고백하며 노래한 별은 작은 가시에도 깊은 부끄러움의 생채기를 내는 어린 도덕적 감수성이다. 별 하나마다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를, 그리고 어린 적 친구들과 작고 어린 것들과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이름을 불러볼 때, 그 별은 모두 그리움을 향해 빛난다. 그것들은 별처럼 너무 멀리 있어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거리, 그 아득함 속에서 그리움이 빛난다. 윤동주의 별 역시 고흐의 별처럼 닿을 수 없는 곳, 그 너머에서 빛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윤동주의 별은 조용히 가슴 속으로 스며든다. 현실적 좌절과 자기 성찰, 그 부끄러움과 그리움을 견디며 내면 깊은 곳에서 별은 꺼지지 않는 빛으로 남아 있다.

알퐁스 도데의 <별>도 떠오른다. 프로방스의 뤼브롱산에 양치기 소년이 외로이 살고 있다. 식량 배달을 온 주인집 아가씨 스테파네트가 소나기에 강물이 불어 귀가하지 못하고 산장에 머문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가씨는 소년의 어깨에 가만히 기대어 잠든다. 프랑스 시골 마을의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자랑처럼 무성한 풀밭 언덕에 앉아 있는 소년 소녀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털 익은 풋사과마냥 풋풋한 사랑이 소년의 가슴에서 피어오른다. 광대한 우주가 집처럼 포근하다. 그 소박한 이야기 안에서 하늘과 땅, 별과 인간이 고요한 세계 안에서 숨을 고르고 있다. 사랑이라는 별이 반짝 빛난다. 너무나 소박하고 순수해서, 여기에 루카치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오직 고독과 정적의 신비로운 세계가 있을 뿐이다.

우주와 인간을 연결하는 시선

칼 세이건은, 지구를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의 아주 작은 무대라고 한다. 인간은 뜨거운 그 무엇을 저 광대한 우주와 공명하며, 우주를 자신의 편안한 집으로 받아들인다. 아마도 우리는 모두 저 별로부터 태어난 코스모스의 자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별은 현실 너머 아득한 어딘가에서 언제나 빛나고 또 우리들 가슴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루카치의 별, 고흐의 별, 니체의 별, 윤동주의 별, 도데의 별이 빛나고 있다. 브루클린의 밤하늘 아래 서 있던 소년의 가슴 속에서도 그 별은 밝고 맑게 빛나고 있었을 것이다. 칼 세이건에게 별은, 단순한 천체의 일종이 아니라 이 모든 의미를 함축하는 우주로 활짝 열린 창이 아니었을까?

1

글 이순정 요금전략처
요금분석팀 책임연구원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일상의 이면에는 전기, 가스, 석유 등 다양한 에너지가 24시간 쉬 없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 에너지가 갑자기 끊긴다면 어떨까? 중동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보이지 않게 우리 사회를 지키는 ‘에너지 안보’에 대해 조명해본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 ‘에너지 안보’

에너지가 멈추면 우리 일상도 멈춘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공급이 대폭 줄어들며 난방비가 폭등했고, 일부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다. 당시 IEA(국제 에너지기구)는 1974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한 해에 두 차레나 비축유를 방출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해야 했다. 이처럼 에너지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어,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우리나라 주유소 기름값도 덩달아 오른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이다. 쉽게 말하면 “전쟁, 재난, 가격 폭등 같은 일이 생겨도 우리나라가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끊기지 않게,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에너지 안보, 이제는 이렇게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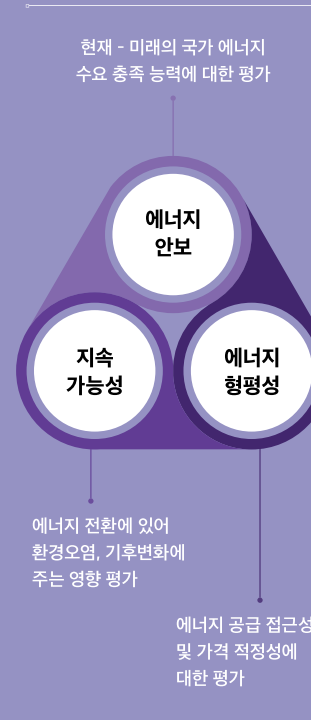
과거에는 에너지를 단순히 “석유나 가스를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사오는 것” 정도로 정의했다. 창고에 식량을 넉넉히 쌓여두면 마음이 든든했던 것처럼 중동에서 원유를 안정적으로 들여오고 비축유를 충분히 확보해 두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현대의 에너지 안보는 훨씬 입체적인 개념으로 발전했다. 이제는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모두 “YES”라고 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에너지 안보를 갖춘 국가라 할 수 있다.

- **“끊이지 않는가?”(공급 안정성)** : 외부 충격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지 않고, 만약 끊기더라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가.
- **“너무 비싸지 않은가?”(경제적 형평성)** : 국민과 기업이 부담 없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고, 에너지 빈곤층이 발생하지 않는가.
- **“환경을 해치지 않는가?”(환경 지속가능성)** :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미래 세대에 깨끗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가.
- **“시스템이 안전한가?”(기술적 안전성)** : 전력망이 튼튼하고 사이버 공격이나 기술적 장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가.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에너지 트릴레마’

이 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세계에너지협의회(WEC)는 이런 어려움을 ‘에너지 트릴레마(Energy Trilemma)’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2012년 WEC가 처음 사용한 이 용어는 세 가지 목표가 서로 얽혀 있어서, 하나를 개선하려고 하면 다른 쪽이 나빠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의미한다. 트릴레마의 세 축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트릴레마의 개념

- ① **에너지 안보** : 공급원 다변화, 비축 능력, 전력망 신뢰도 등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 역량
- ② **에너지 형평성** : 소득 수준이나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에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 ③ **환경 지속가능성** :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것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안보를 위해 값싼 석탄 발전을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공급 안정성과 가격 형평성은 좋아지지만, 환경에는 큰 부담이 된다. 반대로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리면 초기 투자비로 인해 요금이 오르고, 날씨에 따른 출력 변동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흔들릴 수 있다.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다.

대한민국의 성적표: A급 형평성과 저렴한 요금의 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트릴레마 측면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고 있을까? 세계에너지협의회(WEC)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형평성 부문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한다. 전국 어디서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연간 정전시간 10분 내외),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리나라는 전체 1차 에너지의 94%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의 80% 이상을 중동 지역에서 가져오고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게다가 주변국과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전력섬’ 특성상, 유럽처럼 이웃 나라에서 전기를 받아오는 것도 불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저렴한 전기요금’의 이면도 짚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낮은 전기요금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형평성 점수를 높였지만,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에서 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유지될 경우,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한다는 ‘가격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가적인 에너지 과소비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2022년 글로벌 에너지 위기처럼 국제 연료 가격이 폭등할 때, 이를 요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면 그 거대한 충격이 전력공급 시스템 전체의 재무적 위기로 고스란히 전이된다.

앞으로 노후 설비 교체, 재생에너지와 송배전망 투자, 원전의 안전성 강화 등이 본격화되면서 전기요금의 ‘현실화’ 압력은 더욱 키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이다. 에너지가 가진 본연의 가치와 수입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요금 체계야말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국가 전체의 에너지 안보를 튼튼하게 다지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함께 만드는 에너지 미래

에너지 안보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정부와 기업의 정책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고, 각자의 자리에서 에너지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 우리가 모두 작은 ‘에너지 안보 지킴이’가 된다면, 그 힘이 모여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주요국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 및 종합 순위

국가	에너지 안보	에너지 형평성	지속가능성	종합 점수	2023년 순위	순위 변동('22년 대비)
덴마크	72.2	95.8	83.5	83.2	1	↑ 2
스웨덴	73.4	93.4	85.0	83.1	1	-
핀란드	75.9	92.3	80.8	82.7	2	↑ 2
스위스	64.5	98.1	85.7	82.1	3	↓ 1
영국	67.7	95.7	79.2	80.0	8	↓ 3
미국	72.7	97.3	69.0	78.9	10	↑ 2
일본	91.1	94.0	71.4	75.0	23	-
한국	62.2	95.9	63.9	73.1	27	↑ 1
중국	66.3	73.0	56.4	64.4	47	↓ 5

출처: WEC, 'World Energy Trilemma Index 2024'

※ 참고자료
IEA, Overcoming the Energy Trilemma(2023) / 경영연구원, 국가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에너지 전환 추진 전략(2022) / 경영연구원,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7가지 요소(2024)

2

글 박민혁 호서대학교
국제학과 초빙교수

에너지 안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가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는 시점에서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과 이슈를 짚어보고, 한전에 대한 제언을 전문가로부터 들어본다.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 그리고 한전



SPECIAL THEME

에너지 위기의 시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2026년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의 긴박한 정세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유례없는 충격을 던졌다. 세계 원유 해상 교역량의 27%, LNG 거래량의 20%가 통과하는 지정학적 혈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대한민국 경제에 즉각적인 국가 안보 위기로 다가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64%가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한다. 해협 봉쇄 시 사우디의 IPSA나 UAE의 푸자이라 파이프라인 등 가능한 모든 우회 경로를 동원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물량은 기존 물동량의 2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 에너지 구조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과거 2008년의 고유가 사태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현재의 이란 위기는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개별적 사건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된 교훈을 남긴다. 특정 연료와 특정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결국 국가 경제 전체의 취약성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이는 에너지 안보가 단순한 자원 확보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을 지탱하는 시스템의 복원력 문제임을 시사한다. 외부 충격은 단순히 일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 공급망 불안을 시작으로 전력 구입비의 폭등, 요금 부과의 압박, 산업 전반의 비용 증가, 그리고 서민 경제와 취약계층의 생존권 위협이라는 연쇄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에너지 위기는 자원 조달의 문제를 넘어 시스템 전체가 충격을 어떻게 흡수하고 신속히 회복하느냐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문제로 진화하고 있다.

화석연료 의존 줄이고, 신속한 전기화 추진되어야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안은 화석연료 의존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신속하게 전기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IEA에 따르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0% 수준에서 2050년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통해 국내 에너지 생산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에너지 저장장치(ESS)와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수요관

리로 수급 조정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전기차의 확산과 산업 공정의 전기화는 단순히 탄소중립이라는 환경적 가치를 넘어 해외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는 안보 전략과 직결된다. 아울러 전기화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동반한다. 전기 기반의 시스템은 화석연료 직소비보다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정교한 제어를 가능하게 하여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안전하고 안정화된 전기화는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에너지 방벽을 구축하는 일과 같다. 따라서 전기화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전환은 위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시스템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다.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 이슈들

환경정책과 산업정책, 안보정책이 만나는 접점에 있는 전기화가 자동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전력망과 계통운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사회로 갈수록 송전망과 배전망은 더 안정적이어야 하고 공급과 수요를 조정하는 기술은 더 정교해야 하며 시스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은 더 투명해야 한다. 결국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특정 발전원 간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전원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력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 전환 목표와 전력시스템 현실 사이의 정합성 문제다. 에너지정책은 설비 목표나 보급 목표를 제시하는 데서 나아가 에너지원을 수용할 전력망과 계통의 현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가 높아질수록 송전망과 배전망, 저장장치, 출력제어 기준, 보조서비스, 인허가 체계, 지역 수용성 확보 방안이 동시에 설계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 목표는 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계통의 물리적 한계와 운영 부담은 선언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이 점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 시스템 준비 없는 목표 확대는 오히려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다음은 비용 신호와 요금의 문제다.

요금은 소비자의 절약 유인을 형성하고 투자 필요를 반영하며 시스템 운영 비용을 사회적으로 배분하는 핵심 장치다. 과도한 요금 억제와 원칙 없는 가격 신호 왜곡은 전력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안보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에너지 요금정책 논의에서는 요금 인상 여부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요금 체계가 전환과 안보를 함께 뒷받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병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분산전원 확대에 따른 제도 질서의 문제다. 분산전원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흐름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분산화는 계통 불안과 비용 전가를 유발할 수 있다. 전력망 접속 질서, 지역별 가격 또는 혼잡 신호, 계통서비스 보상, 직접 거래와 시장 거래에 대한 감시와 평가, 운영과 감독의 분리 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전력산업의 기술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제도적 문제로서 향후 에너지정책 논의에서 더 깊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은 전환의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 문제다.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편익을 높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부담이 특정 계층에 더 크게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은 단순한 목표 중심에서 벗어나 취약계층 보호와 효율투자 지원, 초기 투자비 완화, 소비자 참여 확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형평성 없는 전환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결국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란 높은 목표와 낮은 비용을 동시에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그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가 강조되는 시대, 한전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그렇다면 에너지 전환의 패러다임 하에서 한전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과거의 한전이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력 판매자였다면 미래 한전은 국가 전체 전력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설계하는 시스템 플랫폼 설계자(System Platform Architect)이자 공공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스스로를 중앙집중형 전력회사가 아니라 계통과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회사로 정의해야 한다. 향

**그리고 한전
전환
에너지 안보와**

후 한전의 핵심 경쟁력은 판매량을 넘어 계통 유연성 확보, 분산전원 수용, 데이터 기반 운영, 시스템 최적화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업의 본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의 성공 경험이 미래의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전력망 투자와 디지털 전환을 본업의 중심 과제로 두어야 한다. 전력망은 에너지 전환의 고속도로이며 동시에 에너지 안보의 최전선이다. 송전망, 변전설비, 배전망, 저장설비, 실시간 데이터 체계, AI 기반 예측과 시뮬레이션 역량들이 모두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한전이 발표한 Grid AI와 Virtual Grid, AI 인프라 확충 방향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보인다. 다만 선연적 수준을 넘어 실제 투자 기준, 업무 프로세스, 성과평가 체계, 인력 역량 재편으로 이어져야만 실질적 변화가 될 수 있다.

셋째, 분산전원 확대를 방어의 대상이 아니라 시스템 재설계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민간과 지역 기반 자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한전의 역할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정교한 계통 운영, 더 세밀한 가격체계, 더 투명한 접속 질서, 더 강한 데이터 역량이 필요해진다. 향후 한전의 공적 역할은 축소가 아니라 고도화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넷째, 재무건전성과 공공성을 분리해서 보지 않는 시각을 제안한다. 현재와 같이 재무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한전은 충분한 망 투자와 장기적 설비 대

체, 시스템 혁신을 지속하기 어렵다. 반대로 공공성을 잃은 한전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투자 명분도 확보하기 어렵다. 결국 재무건전성과 공공성은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조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전은 설명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전기요금, 송전망 건설, 분산전원 접속, 출력 제어, 전기화 투자, 지역 수용성은 모두 강화된 사회적 소통을 필요로 한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어떤 혁신도 완성될 수 없다. 왜 전력망 투자가 필요한지, 왜 요금의 합리화가 필요한지, 왜 분산전원 확대에 질서가 필요한지, 왜 에너지효율 향상이 전체 시스템 부담을 줄이는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설명 없는 전환은 저항을 낳고 저항은 다시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지연시킬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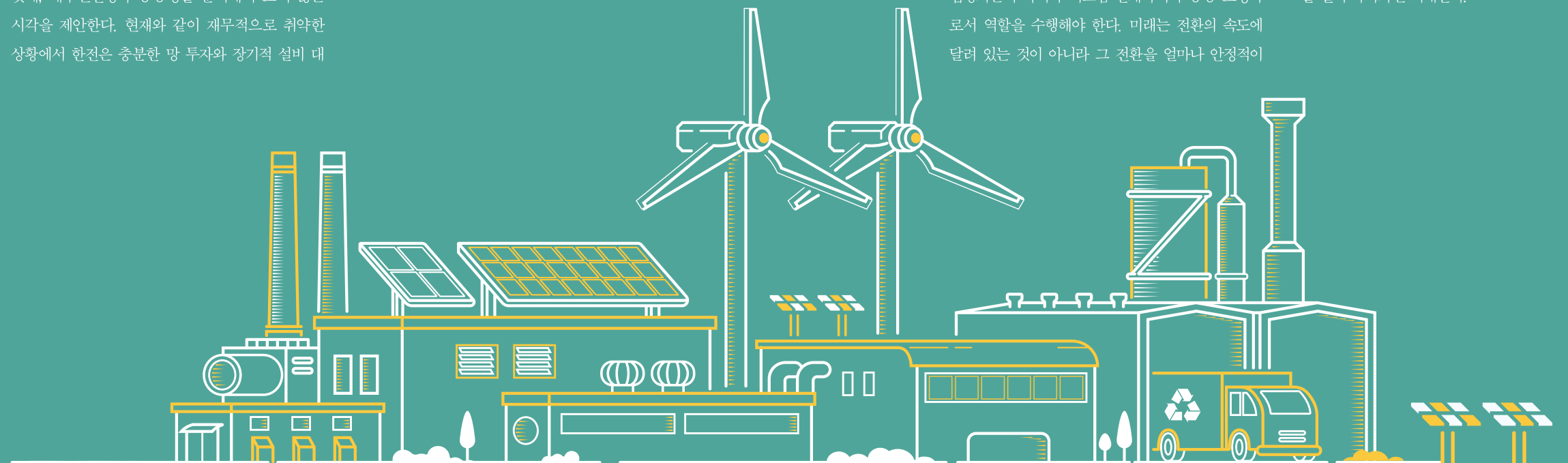
시스템 설계자이자 공공 조정자로서의 역할 기대

이번 이란 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한국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그리고 그 취약성을 줄이는 길은 에너지 전환을 멈추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에너지 안보를 전제로 한 질서 있는 전환, 유연한 계통, 합리적 요금 체계, 형평성 있는 비용 분담을 함께 추진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자이자 공공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미래는 전환의 속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환을 얼마나 안정적이



“
에너지 안보를
전제로 한 질서 있는 전환,
유연한 계통, 합리적 요금 체계,
형평성 있는 비용 분담을
함께 추진하는 데 있다.”

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에너지 안보 시대 속 전환의 방향만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전환을 감당할 시스템까지 함께 준비할 것인가? 한전의 역할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만드는 데 있다. 다가올 에너지 전환의 시대, 한전이 성공적으로 길을 열어 나아가길 기대한다.



3

글 문아현 수요효율처
효율사업실 차장

지난 2월 말 중동에서 시작된 에너지 수급 불안은 꽃샘추위보다 먼저 찾아와 우리나라 에너지시장을 얼어붙게 했다. 언론에서는 연일 고공행진 중인 국제 연료 가격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국민들은 주유소 가격 표지판에서 수급 불안을 체감하고 있다. 지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의 충격이 다시 떠오른다. 국제 정세에 따라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경제적이고 신속한 위기 대응방안, 수요 절감

흔히 우리나라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고 한다. 이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급 불안은 곧 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번진다. 이번 중동발 에너지 위기도 삼시간에 각종 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즉각적인 대응 수단은 바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번 에너지 수급 불안이 발생하자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단계를 격상하고, 석탄 및 원자력과 같은 전원믹스 조정 등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석유 최고 가격제 도입과 대통령 특사 파견 등의 조치도 시행했다. 한편 역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외적 관심을 환기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승용차 요일제와 같이 자체적인 수요 절감 조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이러한 정부나 기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대처가 어렵다. 물건을 지탱할 때에도 3개의 지지점이 있어야 비로소 안정될 수 있듯,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또 하나의 축이 필요하다. 바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다.

SPECIAL THEME



↑ 승용차 5부제(요일제) 포스터.
↓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포스터.



국민들의 참여가 이끄는 위기 극복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이미 뉴스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되어 왔다. 다만 개인의 절약 실천이 과연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모든 국민이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대형 주택에 거주하는 것도 아닌 만큼, 가정에서의 절약이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만 되돌아보면 과거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국가적 위기 극복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사례는 적지 않았다. 2007년 태안 기름 유출사고 당시, 전문가들은 생태계를 복구하는 데에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전국에서 모인 123만 국민들의 힘으로 태안은 10년 만에 완전히 복구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다. IMF 외환위기 시기 금 모으기 운동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참여 역시 국민의 참여가 위기 대응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참여가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 사례가 있다. 2013년 원자력 발전소 3기가 운영을 멈추면서, 그해 여름 강제 순환단전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전력난이 예상되었다. 정부에서는 즉시 전력 수급 비상상황임을 선언하며 에너지 절약 실천을 호소했다. 이에 무더운 날씨에도 냉방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어지면서 불과 3일 만에 비상상황이 해제되고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는 당장 에너지 공급을 보완할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 절감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 참여의 힘이 결코 미미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전과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국민들이 에너지절약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한전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국민들이 한전의 효율향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등이 있다. 한전은 고효율기기 구매·교체 과정에

서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기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과 같은 행동변화사업에 참여하면 절감한 전력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이는 그저 단순히 전기를 아끼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절약 실천에 따른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러한 노력은 실제로 가시적인 에너지 절감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전의 효율향상사업 실적은 1,101GWh로, 이는 서울 강남구 28만 세대의 연간 주택용 전력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발전소로 환산하면 1GW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가 약 46일 동안 100% 가동된 것과 비슷하다. 그야말로 또 하나의 발전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규모의 성과인 동시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올해 한전은 에너지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더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플랫폼인 '슬기로운 전기생활'을 개설하여 절전 Tip을 제공하고, 다양한 효율향상사업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학생 대상 에너지교육을 확대하고 대국민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전기사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언론 보도와 영상 콘텐츠 등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에는 서울 명동에서 CEO와 함께하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전 행동을 소개했다. 곳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과 에너지 절약에 대해 소통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중동에서 시작된 에너지 수급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단순히 여건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며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으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슬기로운 전기생활 플랫폼을 활용하고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 모두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들이 모인다면,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데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다.



AMI

에너지 데이터의 디지털 신경계, AMI가 여는 ‘지능형 전력 세상’

전력은 우리 삶의 공기와 같다. 평소에는 그 존재를 잊고 지내지만, 단 한 순간이라도 끊기면 도시의 교통 체계부터 AI 데이터센터까지 국가의 모든 핵심 기능이 일시에 마비된다. 전력의 연속성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 이제 전력망 운영의 패러다임은 단순히 전기를 ‘보내는 것’을 넘어, 어떻게 ‘지능적으로 관리하느냐’로 점차 진화하고 있다.

과거의 전력망이 발전소에서 소비자에게 전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이었다면, 미래의 전력망은 에너지가 흐르는 동시에 정보가 교환되는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철탑을 세우고 변압기를 늘리는 물리적 확충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전력망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신경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신경계의 최전선에서 전력망의 미세 신호를 포착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센서가 바로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이다.

글 김성철 배전운영처 에너지미터링실 차장

전력망의 ‘도로시’가 뿌린 수천만 개의 센서!

영화 <트위스터>에는 거대한 토네이도의 내부 구조와 이동 경로를 예측하기 위해 수천 개의 정밀 센서가 담긴 ‘도로시’라는 장치를 태풍의 눈 속으로 던지는 장면이 나온다. 보이지 않는 바람의 움직임을 디지털 데이터로 시각화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려는 인류의 도전이다. 현대의 전력망에서도 이와 유사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전국 각지에 설치된 AMI는 마치 전력망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뿌려진 수천만 개의 ‘도로시 센서’와 같다.

AMI는 단순히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계량장치에서 나아가 스마트 미터와 양방향 통신망을 결합한 지능형 인프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과거의 계량기가 한 달에 한 번 검침원이 방문하여 숫자를 확인하는 ‘정지된 기록’이었다면, AMI는 전력량뿐만 아니라 무효전력, 역률, 피크 정보를 실시간 또는 수십 분 주기로 수집하여 전송한다. 이 센서들이 보내오는 방대한 신호는 보이지 않던 전력의 흐름을 투명하게 드러내며 지능형 전력망의 출발점이 된다.

특히 차세대 스마트미터인 AMIGO(AMI Gear for Open platform)는 전력 계측 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다. 수분~수초 단위까지 고정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 스펙을 갖추었고,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유연하게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형 기기’로 진화했다. 이는 전력망 운영자가, 마치 기상학자가 태풍 내부의 기압 변화를 실시간으로 읽어내듯 전력 계통의 미세한 떨림과 변화까지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안성 측면에서도 인증 보안 모듈을 적용해 외부 침입으로부터 데이터를 철저히 보호하며 신뢰성을 높였다.

“

AMI 기반 실시간 전력 사용 정보 제공 앱인 ‘파워플래너’는 고객이 자신의 에너지 소비 결과와 사용 패턴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게 해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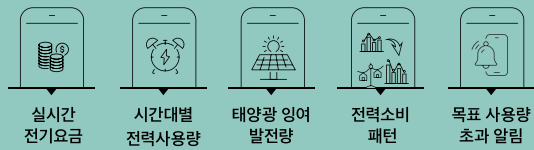
데이터로 그리는 일상의 변화! 파워플래너부터 안부살핌까지

AMI를 통해 생성되는 실시간 전력 데이터는 한전의 서버를 거쳐 고객의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와 구체적인 생활 편익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 전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AMI 기반 실시간 전력 사용 정보 제공 앱인 ‘파워플래너’는 고객이 자신의 에너지 소비 결과와 사용 패턴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게 해준다. 고객은 현재의 사용량 추이를 바탕으로 이번 달 예상 요금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스스로 설정한 목표 사용량을 초과했을 경우 또는 누진 단계가 상향되기 전 알림을 통해 전력 사용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체계를 넘어, 소비자가 자신의 에너지 사용 습관을 직접 관리하는 ‘에너지 주권’을 실천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

파워플래너를 통한 자기주도적 에너지 소비

한전 AMI 구축 고객에게 스마트폰·PC를 통해 전기요금, 전력사용량, 태양광 발전량 등 실시간 전력정보 및 맞춤형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전력 사용과 자발적인 수요반응을 유도하는 서비스



에너지심표(국민DR), 참여가 곧 경제적 보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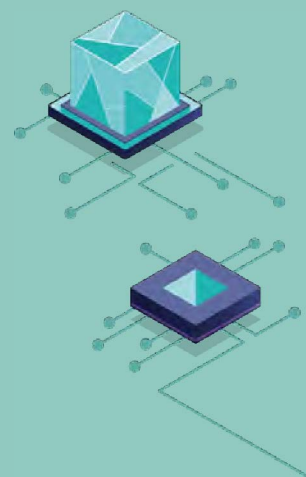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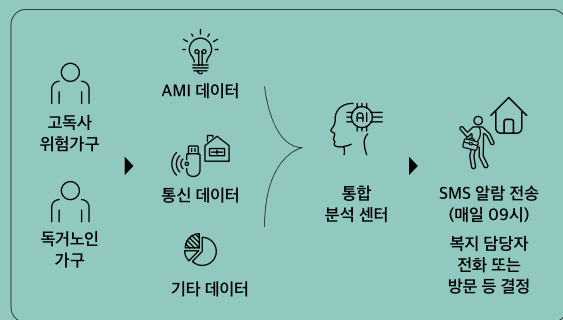
전력거래소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수요 절감을 요청하면, 참여한 가정 및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전기 사용량을 줄여 절감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요반응 제도 (1kWh 당 약 1,000~1,300원)

- ✓ 주택용 및 집합건물(아파트)에 속해 있는 개별세대 또는 계약전력 200kW 이하 전기사용자(AMI 설치 必)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따뜻한 기술의 구현

전력사용량, 통신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1인 가구의 생활 패턴을 AI로 분석하고, 평상 시와 다른 패턴 감지 시 관한 지자체 복지 담당자에게 알람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1인 가구 주거민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AMI의 실시간 계량은 '에너지심표(국민DR)' 서비스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 '에너지심표(국민DR)'는 전력거래소의 요청이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 전력 감축이 필요한 시점에 고객이 스스로 전력을 줄이면 금전적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실시간에 가까운 전력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기에 고객의 전력사용 감축 이행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보상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전력 피크를 낮추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착한 전력 소비를 통한 인센티브 수혜의 기회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을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력 데이터는 복지 사각지대를 밝히는 도구로도 활용된다. 1인 가구의 전력 사용 패턴을 AI가 분석하여, 평소와 다르게 전력 사용량이 급감하거나 장시간 사용이 없는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지자체 복지 담당자에게 즉시 안부살핌 요청 알람을 보낸다. 별도의 고가 장비나 카메라 설치 없이 기존의 AMI 인프라만을 활용하기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으면서도 고독사 예방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서비스의 외연 확장! 고객 접점(BTM)에서 계통 운영(FTM)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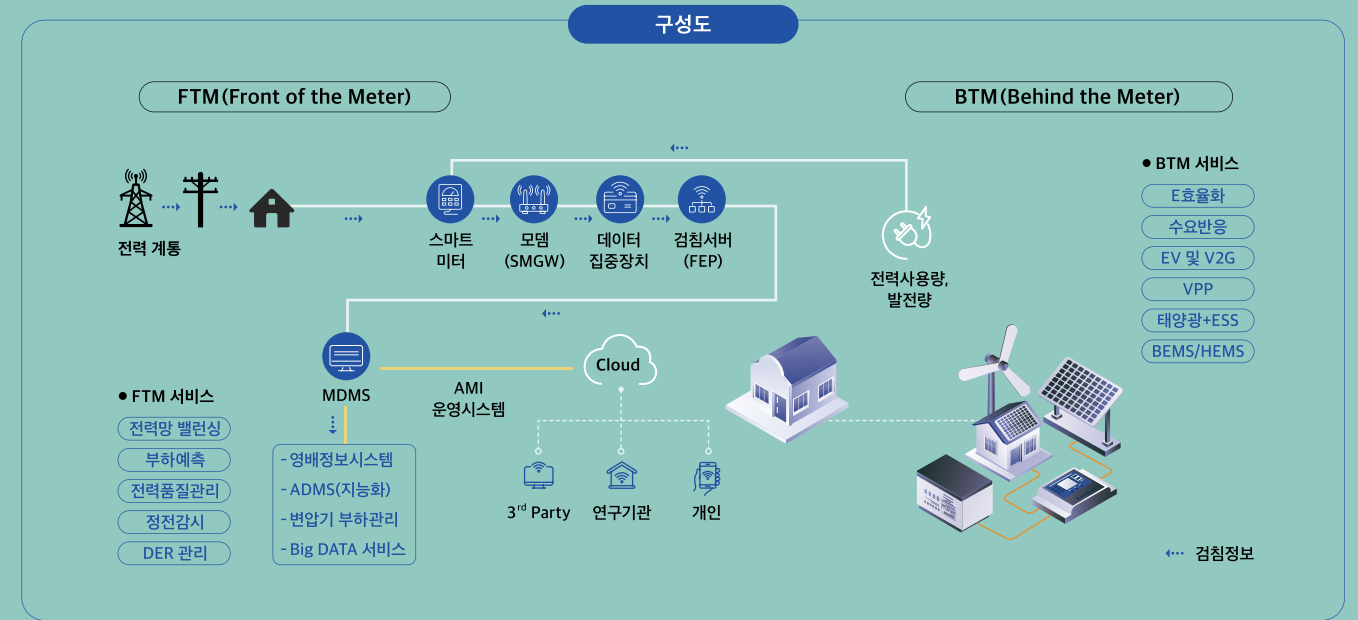
AMI는 그동안 파워플래너 등 BTM(수용가 측) 서비스에 집중해 왔으나, 이제 전력망 운영을 혁신하는 FTM(계통 측) 영역으로 그 외연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AMI가 '에너지 데이터 허브'로서 계통 운영의 지능화를 견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력망 운영 지능화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유지

AMI는 배전계통 운영의 핵심 자산으로서 정전 및 부하-전압 관리의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특히 정전관리시스템(OMS)과 연계하여 고장 지점을 신속하게 특정하고 복구 시간을 단축하며, 변압기 단위의 전력 부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과부하로 인한 과급 고장을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고객측 전압 이상 여부를 상시 측정하고 지역별·선로별 분석을 통해 최적 전압관리를 수행하는 등 계통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AMI 기반 기술의 다각적 활용 방안에 대한 실증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실시간 배전망 품질 계측 및 분산에너지 감시

과거에는 고압 설비 위주의 감시에 집중했으나, 이제는 AMI를 통해 저압 및 개별 고객 구간까지 전 구간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마치 태풍 속 센서들이 실시간 경로를 알려주듯 보이지 않던 전력망의 상태 정보를 세밀하게 시각화해준다. 이러한 가시성을 바탕으로 분산에너지자원(DER)의 출력(전압)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계통의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력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다양한 전력거래 제도에 대응하는 데이터 플랫폼 혁신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이 탈규제와 분산화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전력거래 제도들 역시 AMI 데이터를 만나 한층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PPA 및 VPP 운영 효율 향상

제3자·직접 PPA(전력구매계약)와 가상발전소(VPP)는 전력거래시장 변화의 핵심이다. AMI 정밀 데이터는 이러한 제도들의 운영 효율성을 극적으로 높여줄 수 있다. AMI는 재생에너지의 불규칙한 발전량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을 균형있게 조율함으로써 전력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규모 분산 자원들을 하나로 묶어 거대한 발전소처럼 시장에 참여하는 VPP 모델을 더욱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소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새로운 수익 기회를 제공하고 전력망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

초정밀 데이터 제공 기반 구축

통상 60분 또는 15분 단위의 데이터 수집 체계는 더욱 세밀하게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대용량 고객을 대상으로 5분, 1분 단위의 초정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계측 데이터의 정확도를 극대화하는 과정을 거쳐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와 민간 신사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초정밀 데이터 연계는 공장의 비용 효율적 운영을 가능케 하거나 데이터센터의 공조시스템 운영 스케줄 관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최적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미터링으로 여는 'K-그리드'의 미래

한전은 지난 14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24년 2,005만 호 전 고객의 AMI 보급을 완료하는 대역사를 썼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고 정밀한 전력 데이터망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기술적 난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우리만의 노하우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제는 '보급'의 단계를 지나, 전력망 운영 효율성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다. AMI는 단순한 계량 인프라를 넘어 에너지 효율화와 전력망 신뢰도를 높이는 최적의 솔루션이다. 영화 속 '도로스'의 센서들이 폭풍의 비밀을 밝혀냈듯, 우리 주변의 AMI 센서들이 보내오는 방대한 데이터는 인공지능(AI)과 결합하여 전력망의 고장을 예지하고, 탄소중립을 앞당기며,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을 견인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한전은 이 촘촘한 AMI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력망의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융합과 참여로 창출되는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의 중심에 설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저탄소·디지털 에너지 세상, 그 변화의 시작점에 바로 한전의 AMI가 있다. 14년의 보급 역사를 발판 삼아, 이제는 미터링 데이터 AI 시대로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Beyond Metering, Creating Future Energy Innovation'이라는 비전처럼, 한전의 AMI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되어 전 세계 에너지 혁신을 선도할 미래를 기대해 본다.

한성전기회사 설립으로 희망을 꿈꾸다

외세의 세력다툼 속에서 한반도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흔들리던 구한말,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 황제는 우리 회사의 전신인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고, 전차를 도입하면서 근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출처 『한국전기백년사』, 『KEPCO IN SEOUL 더 큰 세상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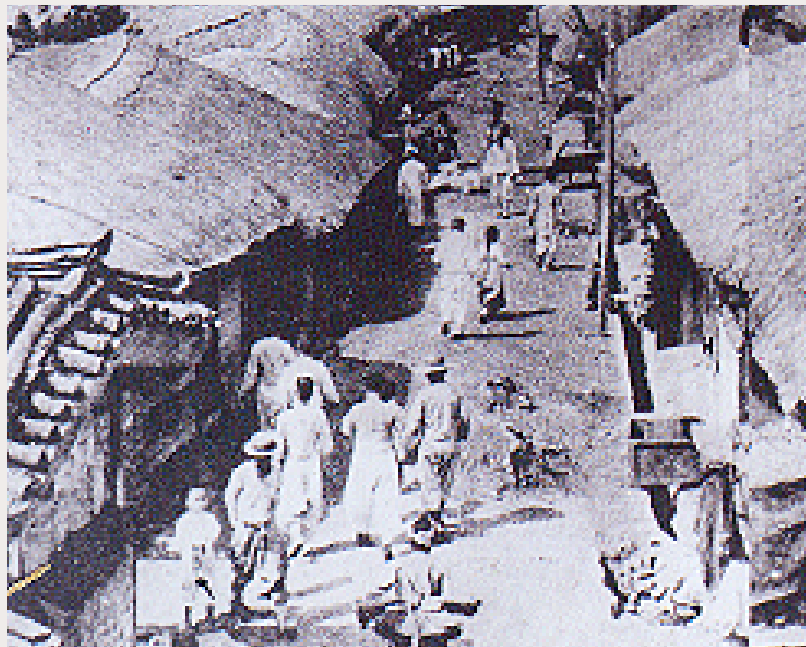
- 한성전기회사 신문광고
- ↓ 1901년 10월에 준공된 한성전기회사의 사옥으로, 지금의 종로 2가 8번지 장안빌딩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 ↘ 전등이 공급된 당시의 진고개. 좁은 골목길과 그리고 초가집 사이에 배전주가 보인다.



한성전기회사 설립되다

한성전기회사의 설립은 당시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에서 날카롭게 대립하는 가운데 추진됐다. 고종 황제는 일찍부터 서울사내 전기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고종은 1896년 말부터 주한미국공사 알렌과 경인 철도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 와 있던 콜브란과 접촉했고, 이 사업을 고종의 주도하에 황실의 기업으로 경영하되 건설과 운영은 콜브란이 맡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러시아를 비롯한 외세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광무 2년째인 1898년 1월 18일, 김두승, 이근배 두 사람의 명의로 전차, 전등, 그리고 전화의 시설 및 운영권을 농상공부에 신청했고, 1월 26일자로 허가를 받아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경복궁에 전등이 켜진 지 11년 만의 일이었다. 경복궁의 전등은 경복궁 전등소의 발전기와 직결된 개별적인 자가발전시설에 불과했으나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면서 중앙의 발전소에서 배전설비를 사용, 일반가정과 사무실 등에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한국에도 처음으로 근대적 의미의 전기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한성전기의 초대 사장에는 지금의 서울시장에 해당하는 한성관윤 이체연이 선임되었는데, 이는 명목상 직위에 불과했다. 한성전기는 사장이 회사를 관장하고 업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산업진흥정책의 일환으로 황실이 전액 투자해 설립한 회사였기에 실질적인 권력은 고종을 위시한 황실 권력층이 갖고 있었다. 이처럼 한성전기회사 설립에는 전기를 통해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고종 황제의 간절한 꿈이 담겨 있었다.



한성전기의 대표사업 전차

한성전기의 대표 사업은 전차사업이었는데, 전차는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신기한 전차를 타보기 위하여 도시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시승자는 연일 만원이었다. 한번 탄 사람은 동대문과 서대문 사이를 왕래하면서 좀처럼 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계산을 탕진하였다고까지 구전되고 있다. 1899년 9월 중 1일 평균 승차 인원은 약 2,170명, 평균 수입은 약 92원이었다고 한다. 인명사고로 폭동이 일어나 한때 전차사업이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전차사업은 계속 확대되어 갔다.

전기 수요 급등과 동대문발전소 준공

전차사업에 이어 한성전기는 전등사업에도 관심을 돌렸다. 이때 전기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한성전기는 최초의 상업적 발전소인 동대문발전소를 1898년 12월 착공해 1899년 2월 준공했다. 75kW 발전설비를 갖춘 발전소였다. 발전소를 세운 자리는 현재 동대문종합시장이 있는 부지였다. 동대문발전소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벽돌과 아연 도금 지붕으로 지어졌다. 1901년 종로2가에 한성전기회사의 본사 사옥을 짓기 전까지는 이곳에 사무실과 적납고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운궁에서 진고개, 남대문과 서대문으로 확대된 전등사업

전등보급의 첫 대상은 궁궐을 비롯해 외국공관이 모여있는 정동과 일본인 상가인 진고개, 그리고 남대문과 서대문 지역으로 계획되었다. 배전선은 먼저 전차용 배전주를 따라 가설하고 그 뒤부터의 연장선은 단독배전주를 세웠다. 시설공사가 완성됨에 따라 1901년 6월 17일 그 첫 번째로 경운궁에 전등 6개를 점등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영업용 전등이다.

경운궁은 지금의 덕수궁으로,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 1897년 2월 20일 이곳에 환궁하여 새로 거처한 궁이다. 황실신문 1901년 6월 17일자 기록에서 전등 시설 6개를 우선 점등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뒤에는 경운궁 전체에 500개 이상의 등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된다.

동대문발전소 전등 개설식

경운궁의 전기공급을 계기로 그 인근에 자리잡은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의 외국공관에도 전등이 보급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한성전기회사는 경운궁에 이어 진고개(현 충무로)의 일본인상가에도 이를 적극 권유하여 6월 말에 전등 약 600개를 보급했다.

한성전기회사는 전등사업의 개시를 기념하고 또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1901년 8월 17일 저녁에 동대문발전소에서 '전등 개설식'을



동대문발전소의 굴뚝. 이 발전소에는 당시 함께 200kW의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전차와 전등 설비에 전력을 공급했다.

가졌다. 정부의 고관과 많은 귀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의 스위치를 눌러 발전기를 작동시켰다. 발전소 주변에 가설된 20개의 아크등과 주요 간선도로에 세워진 가로등이 일제히 점화되어 휘황한 불빛이 장안을 밝혔다. 시내는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떴고 발전소와 그 주변에는 1만여 군중이 모여들어 경탄의 눈으로 이를 지켜보았다.

전등 개설식을 기념하여 8시부터 10시까지는 일반차량은 물론이고 특별전차까지 동원하여 운행했는데 초만원이 이루었다. 1년 전, 4월 10일 이래로 종로에만 세 개의 가로등을 점등하였으나, 이날 밤 11시부터는 전기철도 연변의 네거리 등에는 모두 가로등을 점등했다. 한편, 전기사업은 그 뒤 수요가 점차로 늘어나서 동대문발전소의 전력만으로는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다.

용산 제2 발전소 건설

1903년에는 동대문발전소의 발전량만으로는 전기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1903년 용산에 제2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매킨토시식 250kW 발전기 2대를 설치하는 한편, 남대문 내에는 변전소를 신설했다. 이 용산발전소는 지금의 마포대교 북단 원효로 쪽의 강변에 위치했다.

세련되거나 유서깊거나,

변전소가 이래도 되는가 반문할 만큼 세련된 외관을 갖춘 변전소가 있는가 하면 오래된 서사를 품은 채 사라져가는 변전소도 있다. 중부전력지사의 특별한 '전력설비들'을 소개한다.

글 장은경 사진 이동진

중부 전력 지사의 전력설비들



유서 깊은 수색변전소.



중부변전소의 세련된 외관.



기품 있는 한옥풍 외관의 옥인변전소.

주민친화형 변전소의 상징, 중부변전소

은빛과 붉은 물결이 시선을 따라 건물 벽 위에서 일렁인다. 건축미가 돋보이는 건물의 정체는 갤러리도, 공연장도 아닌 한국전력공사 중부변전소다. 1998년 3월 준공된 중부변전소는 MBC, YTN, 지하철 공사, 마포구청 등 서울 시내 주요 언론사와 교통시설, 공공기관 등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설계 당시 역동적인 에너지와 한강의 유연한 흐름과 융합해 은유적 이미지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관은 변전소가 단순한 에너지 공

급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공존하는 친근한 공간이자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임영섭 중부전력지사장. 그의 말대로 중부변전소의 독특한 외관은 마포새빛공원 내에서도 유독 시선을 끈다. 중부변전소가 자리한 마포새빛공원도 역시 서울화력(옛 당인리화력발전소) 부지를 지하화 하고 발전소 시설물들을 예술적 조형물로 승화시킨 한국관 테이트 모던이라 불리는 현대적 문화공간이다. 이곳은 한강변과 맞닿아 있어 한강 풍경과 노을을 조망할 수 있고 산책도 즐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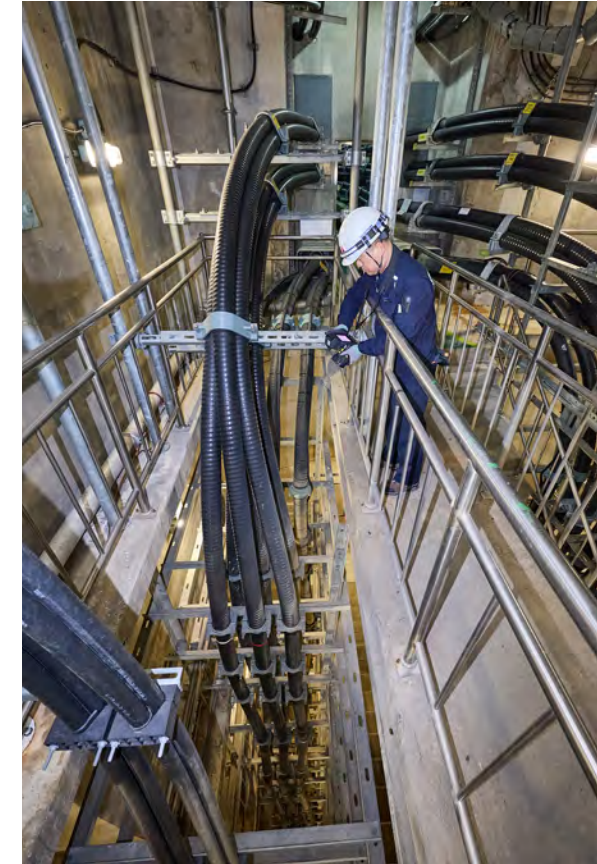


↑ “자, 다 같이 웃으세요! 변압기!” 하자, 활짝 웃는 중부전력지사 ‘전력설비 러버’들.
→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OF선로인 345kV 양주~중부선로를 진단점검하는 중부전력지사 송전팀 직원들.
↘ 고배울 망원경으로 GIS를 진단하는 수색변전소 직원.

있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곳에서 중부변전소는 주변 공원의 구조물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중부변전소는 ‘변전소는 딱딱하고 부정적인 시설’이라는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고 보다 친근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장착한 채 지역 주민들에게 성큼 다가선다. 중부전력지사의 변전소들은 이처럼 지역사회와 친근하고 조화롭게 공존한다. 옥인변전소는 기품 있는 격자 문양과 기와를 얹은 한옥풍 디자인을 가미해 주변의 광화문, 서촌의 풍경과 어우러진다. 특히 이 일대는 핵심적인 국가 중요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기에 이곳을 지키는 중부전력지사 사수들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수색변전소, 88년의 오래된 이야기를 품다

중부전력지사에는 오래된 서사를 간직한 변전소도 있다. 무려 88년의 세월을 간직한 수색변전소다. 수색변전소는 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154kV 초고압변전소로 1937년 4월 조선송전주식회사로 출발해 1943년부터 조선전업주식회사 소속이 됐다. 그리고 1948년 5월, 평양 제1변전소~수색변전소 간 송전이 중단되는 5·14 단전의 중심이 됐던 역사적 공간이다. 현재는 수색변전소 지하화 공사가 한창이며 지상에는 서대문은평지사 사옥이 올라가고 있다. 신축 변전소는 올해 안에 준공 예정이며, 이와 함께 오래된 수색변전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수색변전소의 오래된 철골은 눈에 띄게 휘었고, 변전소 차벽 위에 검버섯처럼 검은 이끼들이 끼어있다. 변전소 관리동은 회색처럼 바랜 연보랏빛 벽돌 건물이 마치 홍콩 누아르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주변의 아파트에 둘러싸인 이질적인 공간은 수많은 서사를 품고 사라질 터이다. 흐드러진 벚꽃과 함께 여든 여덟 살 수색변전소의 마지막 봄날이 가고 있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양주~중부 선로

중부전력지사가 관리하는 오래된 설비는 수색변전소만이 아니다. 국내에 6개만 존재한다는 345kV OF선로, 그중에서도 미금~성동 선로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선로인 양주~중부 선로를 중부전력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양주~중부 선로는 97년에 준공됐다. OF선로란 절연유를 채워 절연 성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30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운영되다 보니 OF케이블 내 절연유가 종종 누유되곤 한다. 누유 지점을 찾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온 몸이 기름 범벅이 되고, 밤을 새워 작업하는 게 일상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345kV 선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일하고 있다고 이들은 자랑스럽게 말한다.

전 구간 지중화, 최첨단 과학화 시스템으로 24시간 통합감시

이렇듯 중요하거나, 오래된 전력 설비들을 운영해야 하는 중부전력지사는 특히 전 구간이 100% 지중송전선로로 구성되어 지중송전 설비 통합 감시실을 갖추고 최첨단 과학화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철저하게 감시 하고 있다. 오랜 역사만큼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중부전력지사의 전력설비들. 하지만 세대가 바뀌어도 전력설비를 향한 그들의 진심만큼은 바래지 않는 모양이다. 전력설비 현장으로 향하는 중부전력지사 사수들의 넉넉한 봄 햇살이 내려앉았다.



88년의 세월을 품은 채 올해 안에 철거되는 수색변전소의 마지막 봄날.



KEPCO NEWS

2026. 05.



대국민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 전개

대국민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 전개

한전이 국가적 에너지 위기 극복과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4월 10일 서울 명동 일대에서 '대국민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김동철 사장은 거리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과 절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도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지원 제도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이번 행사는 한전이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대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에너지절약 공감대를 한층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은 지난 달 30일부터 전국 15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와 전통시장 등에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한전은 대외 캠페인과 더불어 자체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도 강화했다. 전사적으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 5%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승용차 2부제, 승강기 저충 운행 제한, 옥외조명 점등 금지, 업무공간 조영제어 등을 시행한다. 에너지 관리 최적화와 전 임직원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통해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8개)' 통합 출범식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와 한전은 4월 17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 통합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 신기술·신사업의 실행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김동철 사장과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 전환정책실장을 비롯해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등 정부·산업계·학계·연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전력거래소 등 관련기관과 각 분야 전문가 약 110여 명이 함께해 포럼 출범의 의미를 더했다.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은 송변전계통 ESS, 배전망 ESS, 그리드포밍 기반 차세대 인버터, V2G, VPP, AMI, 공기열·수열 히트펌프, 바이오수소 등 총 8개로 구성됐다. 산업계 42명, 학계 27명, 연구계 11명, 정부·공공기관 34명 등 각 주제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날 출범한 8개 전문 포럼에서는 향후 5개월간 단기 집중 논의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에너지신사업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예정으로, 관련 기술·시장·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전력산업 혁신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즉시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원전, 전력 인프라 시장 진출 본격화

김동철 사장이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정부 및 국영기업 핵심 인사들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행보에 나섰다.

한전은 4월 22일 베트남 주석궁에서 양국의 정상급 임직관 가운데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이하 Petrovietnam)와 '원전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어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4자 간 '금융협력 MOU'를 체결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Petrovietnam과의 협약은 지난해 8월 또 렘(To Lam) 베트남 공산당 총 서기장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한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와 더불어 향후 한전과 Petrovietnam 간 신규 원전 건설사업 협력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앞서 한전은 베트남 전력공사(EVN)와도 '전력 인프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

해 HVDC(초고압 직류 송전), AC 송전망 구축·운영 및 DC 배전기술 등 전력 인프라 전반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실행력 대폭 강화 위해 '안전 메아리' 제도 도입

한전이 전력설비 공사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자 간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메아리' 제도를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감전, 떨어짐, 끼임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전력설비 공사 현장에서 의사소통의 부족이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한전은 기존 서류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안전 메아리'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협력회사 '안전 메아리' 시행 유도, 안전 중심 '작업 안전 체크리스트' 전면 재정립, '스마트 안전기기' 지원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긴급 전력그룹사 사장단 회의 개최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4월 3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긴급 전력그룹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가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에너지 절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중동정세 관련 재무위기 대응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한전의 고강도 에너지 절감 종합 대책, 에너지 안보 위기에 따른 전력그룹사의 비상대응 전략, 에너지 대전환시대 대비 전력망의 과제 등 전력그룹사 공동의 주

요 경영현안을 폭넓게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현 상황을 '경제 전이상황'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환율과 국제 연료가격 급등이 재무구조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전력공급 역량 극대화도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그룹사 차원의 역량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KEPCO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공식 출범

한전이 4월 1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한전-수탁사-자문기관 합동으로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KEPCO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협의회는 AI 기술의 확산과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보호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KEPCO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는 경영관리부 사장을 위원장으로, 본사 및 사업소 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 자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사적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또한 실질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정책', '수탁사 협력', '유출사고 대응' 등 3개의 실무 분과를 구성·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개인정보 업무의 보호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정보공사와 전력설비 위치정보 관리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전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와 손잡고 국토정보에 기반한 전력설비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설비 관리체계를 혁신한다.

한전은 3월 26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LX

와 '전력설비 위치정보 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치호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과 이주화 LX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LX의 정밀 측량 기술과 국토 공간정보를 활용해 전주 등 한전 전력설비의 위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전은 LX가 보유한 지적·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해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동해안변환소 전력구공사 터널 관통식 시행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는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적기 달성을 위한 배후계통 연결사업을 추진하며 올린 한울 원자력발전소 내에 시공 중인 동해안변환소와 한울스위치야드 간 전력구공사 구간 중 465m 연장의 터널 관통을 적기에 완료하고 관통식 행사를 지난 4월 14일 시행했다.

동해안변환소 AC배후계통연결 전력구공사의 터널공사는 Shield-TBM 공법을 적용하였으며, 지난 2025년 10월 최초 굴진을 시작하여 2026년 4월 14일 직경 4.5m, 총 길이 465m의 굴진을 완료했다. 연약지반 파쇄대 등 악조건을 극복하고 적기 목표를 달성한 이번 터널의 관통은 전체 연장 1,068m를 시공 중인 AC 배후계통 연결 전력구공사의 핵심구간이다.



FF



KEPCO

2026 May
Vol.635

지향



LOCAL : RISING 겹겹의 시간이 살아가는 숲, 광주	4
TREND 깊어지기 싫어서 짧게 모인다, '숯설링'	8
SELECT : ON 5월의 햇살, 돛자리 한 장에 담다 전국 봄 피크닉 지도	12
RE : CHARGE 인천 앞바다에서 세월을 낚다!	16
SCIENCE 과학자와 공학자가 '같은 우주'를 '다르게' 보는 법	20
KEPCO TALK 나의 인생 운동, 발레	24
KEPCO QUIZ	26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점점의
시간이
살아가는 숲

광주



양림동에 있는 근대문화유산 중 하나인 오원기념각.

요즘 광주를 말하는 키워드는 여럿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핫한 건 떡이다. 시즌 개막과 함께 ‘야구’도 한 축으로 등장했고,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이후 광주극장도 제법 핫해졌다. 5·18 사적지는 여전히 광주의 단단한 중심이고, 양림동과 동명동 카페거리 또한 매일 시간의 켜를 달리하며 반짝인다. 그래서 다시 광주에 간다. 오월이어서, 마침 ‘핫’하기까지 해서.

글·사진 이시목 여행작가

요즘 MZ세대 취향은 광주

벌써 60년이 지났다고 한다. 창역떡 말이다. 갑자기 웬 ‘떡 얘기냐’ 싶겠지만 이유가 있다. 요즘 창역떡으로 광주가 들썩여서다. 마치 빵 사러 대전에 가는 것처럼, 떡 사러 광주 가는 일이 빈번해진 것. 그 덕에 창역떡 본점이 있는 중흥동 일대가 연일 소란하다. 아침부터 대기 줄이 길게 이어지는 것은 물론, ‘쫄득+달콤+폭신’한 호박인절미 한 상자가 광주 곳곳을 누비다 서울까지 달는다. 지역의 오래된 ‘맛’ 하나가 전국구 스타로 빛을 내기 시작한 셈.

이후 ‘떡집 중심’ 여행 루트도 자연스럽게 개척됐다. 창역떡에서 기아챔피언스필드(이하 기아챔필)나 동명동 카페거리로 향하는 동선이다. 그중 떡 사러 온 김에 혹은 야구 보러 온 김에 두 가지를 함께 즐기려는 MZ 여행객이 대폭 늘었다. 실제로 인근 버스정류장에 가면 인절미 박스를 든 채 기아챔필행 버스를 기다리는 원정 팬이 수도룩하다.

이런 이색 풍경을 가능케 한 배경에 기아챔필의 구조가 있다. 국내 최초의 개방형 통로를 갖춘 이곳은 먹으면서 야구를 관람할 수 있는 ‘식후경야구’의 성지다. 어느 자리에 앉든 경기가 한눈에 들어와 피크닉처럼 야구를 즐길 수 있다. 상상해 보시라. 호박인절미를 맛보며 ‘남행열차’를 떠창하는 시간을. 어쩌면 이 시간이야말로 지금의 광주를 가장 광주답게 여행하는 방식일지도 모르겠다.

오월 광주는 여전히 햇살

2020년이었나. 광주광역시외 도시 브랜드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접한 것이. 당시 광주시민들은 ‘광주 하면 떠오르는 단어’로 ‘5·18민주화운동’을 가장 많이 꼽았다. 두 사람 중 한 사람. 딱 절반이었다. 다시, 오월이 왔다. 광주의 오월,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명사화된 ‘오월 광주’는 잊어서는 안 될 ‘굴곡진 현대사’의 한 페이지이자 잊을 수도 없는 ‘투쟁의 기억’이다. 그래서 걸었다, 건물 곳곳에 총탄 흔적이 또렷한 전일빌딩245부터



- ← 광주 시민들의 푸른 사랑방이자 피크닉 명소인 ACC 하남당.
- ↑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폐품을 모아 예술작품으로 꾸며낸 펭귄마을.
- ✓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 극장인 광주극장 내부.
- ↓ 국립 5·18민주묘지, 기억하는 한 결코 지지 않는 오월의 꽃들이 누운 곳.



시간이 빛어낸 로컬의 맛

시간이 지난 듯 고인 풍경은 광주극장과 양림동에도 있다. 광주극장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 극장이다. 나무 재질로 꾸민 내부는 묵직하고, 빛바랜 홍보물에 쓰인 투박한 스타일 서체는 클래식하다. 무엇보다 극장 입구에 걸린 영화 간판이 화룡점정. 어디선가 본 듯하지만 어디에도 없는 포스터라 눈길 오래 머문다.

옛 흔적이 빼곡한 광주극장과 달리, 근대로 타임슬립한 듯 모던한 느낌이 다분한 양림동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또 전통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이, 예술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이 절묘하게 공존하는 '근대 시기 광주의 얼굴'이다. 아니, '근대의 얼굴'이면서도, 근대에 머물지 않고 현재를 지속적으로 담아가고 있는 '시간의 그릇'이다. 오늘 양림동을 걷는다는 건 그래서 그 모든 복합적인 시간과 공간의 층위를 구분 없이 둘러본다는 뜻이다. 그중 펭귄마을에서 한희원 미술관~이장우 가옥~오웬기념각~우일선 선교사 사택~이이남스튜디오~사직공원을 걸어 누비는 코스가 인기다. 만약 발걸음을 늦춰 취향에 맞는 몇 곳에만 온전히 머물고 싶다면, 우일선 선교사 사택과 펭귄마을, 이장우 가옥을 추천한다.

그러다 해 질 녘이 되면, 사직공원으로 길을 잡자. 사직공원은 '사직 빛의 숲'이 펼쳐지는 자리로, 밤이 되면 공원 내 산책로 800여 미터 구간이 빛으로 찬란해진다. 반딧불이처럼 날아다니기도 하고 하늘로 발사되기도 하는 빛의 무리들. 그 가운데 사직공원 전망대가 있다. 영화에서 보던 UFO처럼 독특하게 생긴 G타워는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아니 그 이상의 하늘로까지 빛으로 물드는 매혹의 정점이다. 전망대에 서서 밤하늘에 긴 궤적을 남기고 사라지는 레이저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 타워 바깥에서 빛 자체가 되는 타워를 감상하는 시간도 좋다. 하루 내 반짝이는 오월 속을 걸어서일까. 광주에서 누리는 시간은 늘 '겹겹의 시간이 살아가는 숲'을 잠시 빌려 보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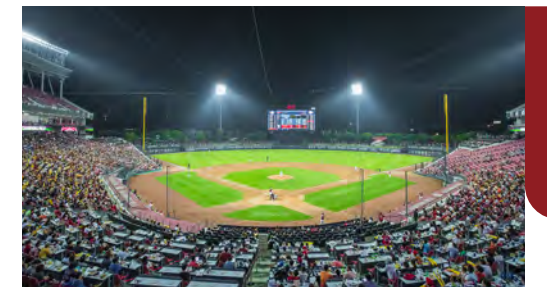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최근 복원을 마친 옛 전남도청까지, 그날의 시간이 흥터처럼 혹은 훈장처럼 남아 있는 광주의 오늘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도 그 시간 안에 있다. '옛 전남도청'이라는 굵직한 현대사의 한 획을 끌어안은 곳 ACC는 이 귀한 공간의 역사적 가치를 안고 2015년 출발했다. 민주와 인권의 가치가 담긴 광주의 상징물들을 압도하지 않기 위해 도청 건물 아래에 동지를 틀었고, 땅을 깊게 파낸 듯한 건축 구조 덕분에 주변이 온통 도로임에도 고요하고 여유롭다. ACC가 과거를 품은 채 현재와 미래 사이 어디쯤에 존재하는 독립된 섬처럼 느껴지는 건 이 때문이다. 그 큰 섬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라이브러리파크와 하남당이다. 라이브러리파크의 개방식 서가와 하남당은 오래 앉아 멍을 때리기에 좋고 누워 책을 읽기에 좋다. 과거의 시간이 만들어준 현재 위에서 누리는 시간이라 더 안전한 것일 테다. 이 과거이자 현재의 광주의 시간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싶다면 이동의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좋다. 518번 시내버스를 타는 것이다. 이름 그대로 5·18 사적지를 따라 이어지는 518번 버스는 금남로와 전남대, 국립5·18민주묘지 등을 잇는다. 오월의 별이 따스하게 비쳐드는 버스 차창으로 누군가에게는 지나갔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이야기가 스민다. 그래서일까, 5·18 사적지는 늘 '돌러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며 겪는 시간'에 가깝다.

TRAVEL TIP



청어떡볶이

🕒 운영시간 06:00~21:00(연중무휴)
☎ 문의 062-520-6000



기아 챔피언스필드

🕒 운영시간 경기 시작 2시간 전 개장
🎫 입장료 약 8,000원~25,000원(좌석 등급별 상이)
☎ 문의 070-7686-8000(예매 필수)



ACC

🕒 운영시간 10:00~18:00
* 수·토요일 20:00까지 연중 운영
* 야외공간 06:00~22:00
📅 휴관일 매주 월요일
🎫 입장료 무료(일부 기획 전시 유료)
☎ 문의 1899-5566



광주극장

🕒 운영시간 10:40~22:00
🎫 입장료 성인 1만 원, 청소년 9천 원
☎ 문의 062-224-5858

광주에 살아보니

'노잼 도시' 광주 놀러 붙어 살기엔 허벌나게 좋은 도시

흔히 광주는 '볼 거 없는 노잼도시'의 대명사로 불린다.(투잡 노잼도시였던 대전이 탈출한 후 우리만 남았다.) 하지만 광주인들은 그 말에 은근한 미소를 짓는다. 광주는 요란하지 않아서 더 살기 좋은 '잔잔함의 역설'이 살아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5월이기도 하고, 최근 핫해진 호절미(호박인절미)를 사러 여행 겸 방문할 분들에게, 또 봉사 발령으로 불가피하게 이쪽에 터를 잡은 직원들에게 놀러 붙어 살고 싶은 도시, 광주의 '잔잔함'을 키워드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트렌디함 속 여유 광주에서 가장 핫한 곳은 동명동이지만, 동명동과 마주한 광주의 랜드마크, ACC도 놓칠 수 없다. 특히 5월 중순부터 푸르른 잔디를 갖춘 하남당이 개방하는데 해 질 녘, 이곳에 돛자리를 펴고 앉아 있으면 화사한 봄밤의 여유가 피부에 닿는다. 걸음 끝 감각의 미식 동명동 카페거리, 일명 '동리단길'은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는 맛이 있다. 번잡한 메인 거리를 벗어나 골목을 걸다 보면 주택을 개조한 감각적인 가게들이 많으니 나만의 단골 가게를 만들어 보자. 특히 ACC 근처 골목엔 광주 여행 코스 중 하나인 '크림순대국밥'을 파는

김다빈 광주전남본부 기획관리실 대리

식당도 있는데 느끼하지 않고 중독적인 맛이니 꼭 도전해 보시라. 함께 나누는 자연 나누에서 가까운 광주호 생태공원은 가족들과 5월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각종 테마로 조성된 공원 곳곳과 시원한 호수는 잠시 일상을 멈추기에 탁월하다. 이곳에서 슬쩍 넘어가면 담양이고 화순이라, 3대 전통 정원인 소재원을 구경하고, 무등산 드라이브 코스를 지나 상다리 휘어지게 나오는 보리밥 정식을 마주하며 왕이 된 기분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깊은 풍경, 웰니스의 도시 무등산의 정기를 가득 느낄 수 있는 중심사 코스는 완만한 산책로와 수려한 풍광으로 건강과 여유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 흐드러진 나뭇잎이 만들어준 그늘 사이를 한참 걷다 내려와서 무등산 입구에 자리한 식당들을 하나 골라보자. 도로리목과 해물파전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주중의 피로를 씻어내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약간의 도파민이 필요하다면,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크림새우를 먹으며 야구를 보자. 경기 결과에 따라 양쪽의 도파민을 모두 충전할 수 있다. '노잼 도시' 광주에서 매일 도파민 터지는 재미를 찾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둘러붙어 살기에 이런 '잔잔함'과 '맛'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2025년 8월 말, 독일 남서부 소도시 카를스루에(Karlsruhe)의 한 광장에 수백 명이 모였다. 이들은 모두 포크와 편의점 푸딩 한 컵을 들고 있었다. 몇 주 전, 누군가 시내 곳곳에 종이 한 장을 붙였다. “우리 같이 포크로 푸딩 먹을까요? 날짜, 장소, 시간은 여기.” 주최자도 없었고, 참가비도 없었고, 이유도 따로 없었다. 약속한 시각이 되자 사람들이 제법 모였다. 포크로 푸딩 뚜껑을 두드리며 카운트다운을 세다가 동시에 포크를 꽂았다. 웃음이 터졌다. 10분쯤 지나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다. 모양새는 황당하지만 모두의 표정은 즐거웠다. 누군가 이 장면을 틱톡에 올렸고, 이를 팔로워 8만여 명의 로컬 밈 계정이 퍼뜨리면서 소문은 순식간에 독일 전국으로 번졌다. 비슷한 모임이 하노버에서는 1,000명 이상이 모였고, 베를린·빈을 넘어 뉴욕 센트럴파크까지 닿았다.¹ 이런 현상을 ‘숏셜링(Shortsocial-ing)’이라고 부른다.

글 이해원 트렌드코리아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숏 숏 숏 숏

깊어지기
싫어서
짧게
모인다

셜 셜 셜 셜

링 링 링 링

숏폼처럼 소비되는 인간관계

숏셜링(Shortsocial-ing)은 Short(짧은)와 Socialing(어울리기)을 합친 신조어로, 잠깐 모였다가 가볍게 헤어지는 일회성 모임을 가리킨다. 보통 ‘모임’이라 하면 같은 멤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며 관계를 쌓아가는 형태를 떠올리기 쉽다. 숏셜링은 방향이 다르다. 소속감도 없고, 다음 약속도 없다. 포크 푸딩 모임처럼 어떤 ‘경험 하나’를 빌미로 모이고, 끝나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계속하지 않아도 되고, 성과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 순간이 전부다. 모임이 숏폼 콘텐츠처럼 짧게 소비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단기성이 오히려 강점이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서 가장 큰 장벽은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인데, 숏셜링은 콘셉트 자체로 그 불안을 지워버린다. 포크로 푸딩을 먹는다는 황당한 상황 앞에서는 어색함도 쑥스러움도 설 자리가 없다. 다 같이 웃으면 그만이다. 실력도 준비도 필요 없고, 별로면 그냥 안 오면 된다. 참여해도 잃을 게 없는 구조. 관계에 조심스러운 세대가 그나마 문을 열 수 있는 조건이 여기 있다.

수요일의 저녁식사부터 단타이핑 원데이 클래스까지

한국 숏셜링의 대표는 ‘경도’다. 참가자들이 두 팀으로 나눠 도심이나 공원에서 ‘경찰과 도둑’ 놀이를 즐기는 모임이다. SNS나 동네 커뮤니티 앱에 올린 모집 글에 댓글을 달고, 정해진 날 지정 장소에서 게임에 열심히 참가하면 된다. 가수 이영지가 주최한 경도 모임처럼 10만 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10명 안팎이 동네 공원에서 뛰어놀다 헤어진다.

이어서 ‘감자튀김 모임’도 화제가 되었다. 동네 패스트푸드점에 모여 감자튀김을 대량 주문해 나눠 먹는 게 목적이다. 나이도 직업도 묻지 않는다. 서너 명이 테이블 하나를 차지하고 감자튀김을 쌓아놓은 채 잡담을 나누다 끝나는 게 대부분이다.

해외에서는 ‘Timeleft’라는 랜덤 저녁식사 매칭 플랫폼이 숏셜링을 담당한다. 알고리즘이 성향 기반으로 매칭한

¹ Germans meet up to eat pudding with forks — and the trend goes global / The Washington post, 2025. 10. 07.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5/10/07/germans-pudding-forks-trend/>



“
한 번 연결되면
쉽게 끊기 어렵고, 맞지 않아도
빠져나오기 눈치 보인다.
연결의 문턱은 낮아졌는데,
관계의 무게는
오히려 무거워진 시대다.
”

6명에게 수요일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어준다. 매칭된 참가자는 전날 그룹원들의 국적과 직업군 정도만 알게 된다. 식당 주소는 당일 오전에 공개된다. 시간에 맞춰 주소를 찾아가 예약석에 앉아서 할 일은 밥을 먹는 것뿐이다. 식사 후에 친해지는 경우 연락처를 나눌 수 있지만, 그날로 깔끔하게 끝내도 전혀 문제없다. 낯선 사람 5명과 함께 하는 저녁 세 시간이 재밌으면 성공이다. 2023년 프랑스에서 시작해 현재 55개국 250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며 월 참여자가 15만 명에 이른다.

런던의 Wharf Connect는 일종의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는 커뮤니티다. 커리어 워크숍부터 팝에서의 퀴즈 이벤트는 물론, 던타이핑에서의 만두 빚기, 스시 만들기 같은 요리 체험을 일회성으로 개최한다.² 이런 이벤트는 수강료를 내고 무언가를 배우는 클래스가 아니라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서의 의미가 짙다. 보스턴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을 모아 그림, 연극, 시 등 예술작품의 감상을 나누는 ‘더 자(The Jar)’,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학벌, 직업, 낱씨 등의 접담 없이 바로 정해진 주제로만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임, 스킵 더 스몰 토크(Skip the Small Talk) 등도 모두 비슷하다.³

외롭지만, 깊어지긴 싫다

숫셜링이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는 데 있다. 2026년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건강 조

사에 따르면 청년 남성의 41.7%, 여성의 55.6%가 외로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⁴ 해외도 마찬가지다. 2023년 미국 공중보건국은 외로움이 만연한 현상을 공중보건 위기로 규정하기도 했다.

외롭다면 가까운 사람을 만들면 될 것 같지만, 많은 이들이 깊은 관계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스러워 한다. 정기적으로 만나야 하고, 서로의 근황을 챙겨야 하고, 빠지면 눈치가 보인다. 모임에 한 번 나갔다가 맞지 않다 싶어도 이미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어 있다. 연결은 원하지만 그 무게는 버겁다. 그래서 오히려 한번 만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짧고 휘발성 있는 만남 쪽으로 향한다.

숫셜링은 바로 이 지점을 채워준다. 연결은 되지만 구속은 없는 관계. 데이팅 앱 Hinge가 2025년 3월 영국 Z세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² From dumpling-making to pub quizzes: Gen Z's recipe to making friends in real life / CNBC, 2025. 08. 19. <https://www.cnbc.com/2025/08/19/gen-z-workers-are-going-to-irl-networking-events-to-find-friendships.html>

³ When Did It Become So Hard to Make Friends? / BOSTON, 2026.03.01 <https://www.bostonmagazine.com/news/2026/03/01/boston-making-friends-loneliness/>

⁴ 청년이 꼽은 건강 위협 1순위…남성은 경쟁, 여성은 성차별 / 서울신문, 2026.03.02

85%가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답변하면서도, 70%는 낯선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래서 모임이 내세우는 단순하고 명확한 콘셉트가 유효하다. 포크로 푸딩을 먹는다는, 경찰과 도둑을 하고 만두를 빚는다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으면 어색함을 버릴 이유가 생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는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다. 콘셉트가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주최자 없이도 퍼진다

숫셜링의 또 다른 특징은 기획자 혹은 리더가 없다는 점이다. 독일 포크 푸딩 모임의 주최자는 지금도 미상이다. 경기도 모임도, 감자튀김 모임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에 모집 글 하나를 올리면,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로 신청하고, 정해진 날 약속 장소에 나타나 모두 같은 눈높이에서 먹고 놀다가 헤어진다. 준비된 프로그램도 없고, 진행을 이끄는 MC도 없다. 그냥 모인다. 그냥 한다. 그리고 그냥 헤어진다. 기존의 방식대로 동아리를 만들려면 규칙이 필요하고, 행사를 열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려면 운영진이 필요하다. 숫셜링은 그 모든 것을 생략한다.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지켜야 할 룰도 부재한다.

진입 장벽이 없으니 참여가 쉽고, 부담이 없으니 더 많은 사람이 모인다. 이 느슨함이 오히려 확산의 동력이 된다.

다음 포크푸딩은 뭐가 될까

인간은 온라인만으로 살 수 없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같은 공간에서 웃음을 나눠야 채워지는 것들이 있다. 문제는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계의 무게중심은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지금은 누군가와 공간을 직접 공유하는 경험 자체가 드문 일이 됐다.

그렇다고 아무 관계나 맺기도 어렵다. 오프라인 만남에는 비용이 따른다. 한 번 연결되면 쉽게 끊기 어렵고, 맞지 않아도 빠져나오기 눈치 보인다. 연결의 문턱은 낮아졌는데, 관계의 무게는 오히려 무거워진 시대다.

숫셜링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생겨난 틈새다. 직접 만나 되, 깊어지지 않아도 된다. 황당한 콘셉트 하나를 빌미로 모이고, 웃고, 헤어진다.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겪는’ 것에 가깝다. 다음 포크푸딩이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뭐든, 재밌어 보이면 사람들은 나타날 것이다.

전국 봄 피크닉 지도 5월의 햇살, dot자리 한 장에 담다

설레는 봄바람이 코끝을 간지럽히고 따스한 햇살이 대지를 감싸는 5월이다. 가벼운 외투 한 벌 걸치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 나들이객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폭신한 잔디 위에 펼칠 dot자리 하나와 도시락으로 충분하다. 찰나의 봄이 지나가기 전, 일상의 쉼표를 찍어줄 전국 곳곳의 봄 피크닉 명소들을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사진 한국관광공사, 각 명소 제공



공원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성곽 옆 피크닉 수원 방화수류정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392번길 44-6 요금 입장료 무료
이용 시간 상시 개방

고풍스러운 성곽과 연못 '용연'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조선 시대로 잠시 여행을 떠나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한 성곽의 조명이 켜지는 밤이면 방화수류정만의 낭만은 더욱 깊어진다. 가벼운 몸으로 찾아가 인근 대여점에서 감성 가득한 피크닉 세트를 빌려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 고즈넉한 성곽 아래서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남기는 사진 한 장은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기록이다.

공원 살랑이는 강바람과 유채꽃의 향연 상주 경천섬 공원

위치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968-1
요금 입장료 무료 이용 시간 상시 개방

낙동강의 유려한 물길에 감싸안은 경북 상주의 경천섬은 일상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자연의 호흡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평온한 피크닉 명소이다. 드넓게 펼쳐진 잔디광장은 폭신한 초록빛 카펫을 깔아놓은 듯해, dot자리를 펴고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휴식이 된다. 섬 곳곳을 잇는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꽃들과 다양한 나무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특히 강물 위를 가로지르는 범월교와 낙강교는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마치 수채화 속 한 장면 같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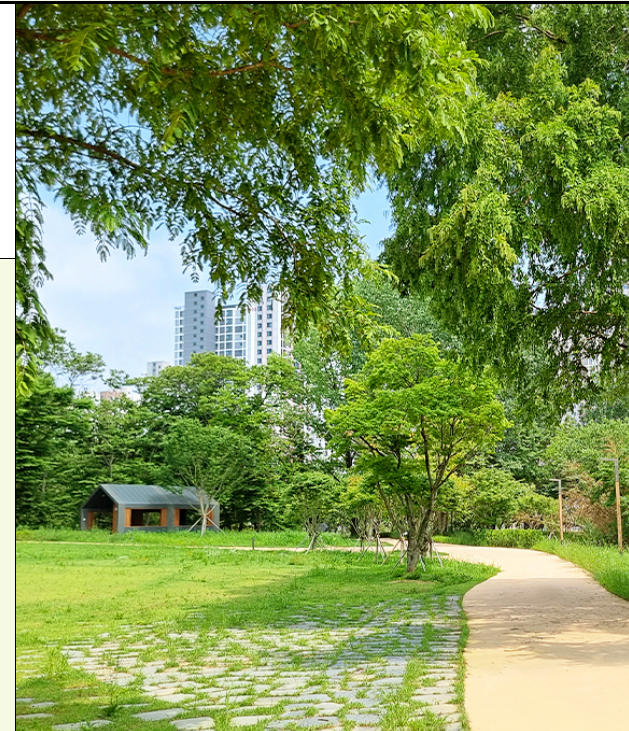
조정 카누 경기장을 따라 길게 이어진 나무들은 시원한 그늘만들어 방문객을 반긴다. 경정공원 내 넓은 잔디밭 어디에 자리를 잡아도 탁 트인 호수 뷰를 감상할 수 있어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자전거를 빌려 타고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공원을 한 바퀴 돌아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는 어느덧 저 멀리 달아난다. 후문에서 이어지는 겹벚꽃길 아래에서 dot자리를 펴고 가족, 연인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다.

공원 **연꽃 물결 따라 걷는 여유**
하남 미사경정공원
위치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05 요금 입장료 무료
이용 시간 06:00~20:00(도보 및 자전거, 차량 출입 기준)

공원 연둣빛 버드나무와 호수가 맞닿은 곳 전주 백석공원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293-86 요금 입장료 무료
이용 시간 상시 개방

전주의 심터 백석공원은 드넓은 백석저수지를 품어 탁 트인 개방감을 선사한다. 봄이면 저수지 주변을 따라 늘어진 버드나무 군락이 싱그러운 연둣빛 물결을 이루며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자연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된 피크닉 하우스와 수변 데크가 있어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인근 카멜리아 가든에서 이어지는 산책로는 봄 햇살을 머금은 채 느리게 걷기 좋으며, 곳곳에 마련된 원형 나무 데크는 피크닉족에게 최적의 장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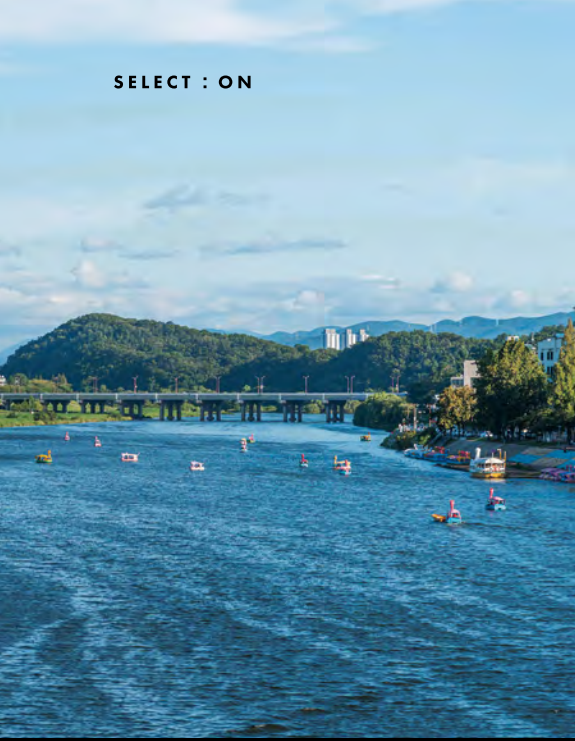


공원 푸른 잔디와 정자의 정취 함안 함주공원

위치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49-50 일원
요금 입장료 무료 이용 시간 상시 개방

함주공원은 함안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서적 함양을 위한 공간으로 계절 따라 변하는 풍경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문화체육공원이다. 특히 다목적구장에는 넓은 평상이 마련돼 있어 나들이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활용되는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를 위한 작은 버스도서관도 있다. 곳곳에 정성 들여 가꾼 소나무의 모습이 멋스러우며, 특히 연못을 조망하는 함주정과 산책로는 방문객들에게 고즈넉한 여유를 선사하며 지역의 감성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오랜 시간 대구 시민들의 추억을 묵묵히 지켜온 동촌유원지는 금호강과 맞닿아 있어 수변 경관을 감상하며 피크닉을 즐기기에 좋다. 울창한 고목들이 커다란 팔을 벌려 천연 그늘을 만들어주기에 별다른 준비 없이 돛자리 하나만 있어도 시원한 휴식이 된다. 캠핑의자와 간이 테이블 하나면 '캠프닉'도 가능하다. 강물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시간은 이곳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근처 식당가에서 맛있는 음식을 포장해 강바람과 함께 즐기다 보면, 어느새 일상의 피로가 강물을 따라 멀리 흘러가는 기분이 든다.

호수·강·바다 노을 지는 금호강의 정취가 가득한 대구 동촌유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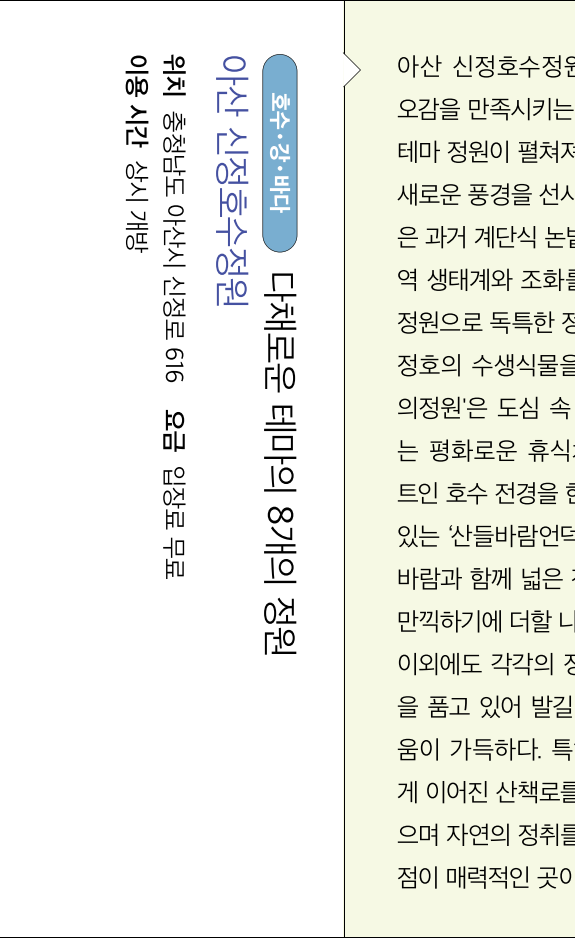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1314 요금 입장료 무료 이용 시간 상시 개방



빌딩 숲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울숲으로 향한다. 찰랑이는 물길을 따라 만개한 벚꽃 아래 자리를 잡으면, 일상의 소음은 어느새 기분 좋은 백색소음으로 변해간다. 얇은 수면이 주변 나무를 비추는 거울연못은 서울숲의 대표적인 포토존이다. 인근 성수동 카페 거리에서 포장한 커피와 디저트를 펼치면 도심 속 작은 피크닉 명소가 된다. 돛자리 위에 누워 나뭇잎 사이로 조각난 햇살을 세어보자. 서울숲에서의 피크닉은 당신에게 가장 다양한 휴식을 선물할 것이다.

숲 도심 속 초록빛 유토피아 서울숲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 273 요금 입장료 무료 이용 시간 상시 개방



호수·강·바다 아산 신정호수정원 다채로운 테마의 8개의 정원 이용 시간 상시 개방

아산 신정호수정원에는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8가지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이 펼쳐져 있어 사계절 내내 새로운 풍경을 선사한다. '다랭이정원'은 과거 계단식 논밭을 재해석하여 지역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 정원으로 독특한 정취를 자아내며, 신정호의 수생식물을 즐길 수 있는 '물 의정원'은 도심 속 갈증을 해소해 주는 평화로운 휴식처가 되어준다. 탁 트인 호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산들바람안덕정원'은 기분 좋은 바람과 함께 넓은 잔디밭에서 여유를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외에도 각각의 정원마다 다른 매력을 품고 있어 발길 닿는 곳마다 즐거움이 가득하다. 특히 호수를 따라 길게 이어진 산책로를 반려견과 함께 걸으며 자연의 정취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곳이다.



숲 산울림이 들려주는 숲의 노래 나주 금성산 생태숲

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370-1 요금 입장료 무료 이용 시간 하절기(3~10월) 09:00~18:00

나주시 금성산 일대에 넓은 삼림과 탐방길이 있는 곳, 깊은 산속이 주는 맑은 공기와 뽀뽀한 나무숲이 일상의 소음을 차단해준다. 숲이 주는 피톤치드를 가득 마시며 잔디광장에 자리를 잡으면, 이름 모를 산새들이 다가와 말을 건네는 듯하다. 잘 가꿔진 생태 정원과 데크길은 가벼운 산책을 즐기기에 완벽하고, 아이들은 숲속 놀이터에서 자연과 친구가 된다. 시기에 따라 야생화와 다양한 식물 군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고, 도심에서 멀지 않아 진정한 쉼을 원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피크닉 장소이다.



숲 화사한 봄꽃과 울창한 숲의 조화 강원특별자치도립화목원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화목원길 24 요금 어른 1,000원 중·고등학생 700원 이용 시간 하절기(3월~10월) 9:00~18:00 / 동절기(11월~2월) 9:00~17:00

춘천시 사봉동에 자리한 강원특별자치도립화목원은 울창한 산림 자원을 만끽할 수 있는 도민들의 대표적인 자연 체험 학습장이자 휴식 공간이다. 봄철이면 형형색색의 야생화와 희귀 식물이 일제히 개화하며 화목원 전체가 거대한 꽃의 정원으로 변모해 방문객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특히 울창한 나무들이 천연 지붕을 만들어주는 숲속쉼터는 돛자리를 펴고 여유롭게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장소로 손꼽힌다. 공원 한편에 마련된 분수 광장은 시원한 물줄기와 함께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아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에게 최적화된 봄 피크닉 환경을 제공한다.

꽃잎이 흩날리는 강변에 앉아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는 피크닉은 여의도 한강공원의 봄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탁 트인 잔디밭 위로 알록달록 펼쳐진 텐트와 돛자리들은 그 자체로 생동감 넘치는 봄의 풍경화가 된다. 배달존의 성지라 불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은 'K-피크닉'의 정수를 보여준다. 해가 저물 무렵 강물 위로 부서지는 노을을 벗 삼아 즐기는 배달 음식이 여의도 한강공원 피크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인 이유다.

호수·강·바다 서울의 봄이 시작되는 곳 여의도 한강공원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요금 입장료 무료(주차료 별도) 이용 시간 상시 개방(배달존 및 텐트 허용 구역 지정 운영)



인천 앞바다에서 세월을 낚다!



글 유현정 인천본부 ICT운영부 대리
사진 황지현

설레는 마음으로 탄 선박의
이름은 '하하호호'.
첫 낚시의 기념으로 다같이
함께 찍는 인증샷도 필수!



여기 인천이야!

저희 네 사람(박근영, 유현정, 강성민, 박지윤)이 친해진 것은 아주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 인천본부로 전입을 하게 된 현정, 성민, 지윤 대리를 근영 대리가 많이 도와주어 낚선 환경에 적응했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는 단순한 동료로 넘어 친구처럼, 가족처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인천분부는 장점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지만, 그중 하나를 꼽자면 '바다가 가깝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때처럼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지금까지 안 해본,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이야기를 나누다가 바다낚시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바다낚시? → 여기 인천이야. 서해 가깝잖아! → 한 번 해볼래? → 사보에 무슨 코너 있던데 신청해 볼까?'와 같은 의식의 흐름과 함께, 자랑스러운 우리 인천본부를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RE:CHARGE 코너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주꾸미 낚시를 생각했지만, 지금은 조황이 좋지 않고 하여 안정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광어와 우럭 낚시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바다 위에서의 낚시 체험은 저희에게도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다 위에서

결전의 그날. 비가 올까 걱정했지만 비는 오지 않았고, 그렇다고 바다 낚시를 하기엔 흐린 날이었습니. 예약한 매장(인천제일바다낚시)에서 모여 낚시대와 미끼를 받아 탑승장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탄 선박의 이름은 '하하호호'였는데 말 그대로 하하호호 웃으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배에 탑승했습니다. 연안부두에서 출발하여 첫 낚시 포인트까지 한 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선상에서 맞는 바닷바람이 이렇게 거셀 줄은 몰랐습니다. 햇팩을 들고 있어도 추워서 첫 포인트인 무의도 인근에 도착할 때까지 선실 안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또, 생각보다 배가 빠르고 꽤나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멀미약 덕분에 아무도 멀미를 하지 않았습니다.





즐겁게 낚시하고 배 위에서 먹는 회와 라면의 맛. 직접 잡은 우럭과 놀래미는 탄탄하고 쫄득한, 찰진 식감이 일품!

포인트에 도착해서 낚싯대를 던지기 전에 채비 연결을 하고 미끼를 끼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채비'란 바늘, 무게추 등 물고기를 잡기 위해 줄 끝에 다는 모든 장치를 말합니다. 낚싯대 끝에 작은 훑핀처럼 생긴 부분을 열고 채비를 연결합니다. 채비의 한 쪽 바늘에는 오징어를, 반대쪽 바늘에는 지렁이를 꽂습니다. 조금 잔인하지만, 살아있는 지렁이의 입을 통해 바늘을 꽂아주어야 지렁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물고기가 잘 낚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징그럽다며 오두방정을 떨었지만 점차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미끼를 바늘에 꽂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연결된 낚싯대를 줄이 꼬이지 않게 바다로 던져 무게추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낚싯줄을 풀어준 후, 한 바퀴 정도 말아 올리면 물고기 잡을 준비는 끝입니다. 손맛을 본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고기가 미끼를 물면 갑자기 무거워지고 손맛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맛에 낚시를 하나 봅니다!

먹는 건 쉽고 낚시는 어려워

이번 낚시 체험을 통해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낚시꾼들이 세월을 낚는다고 하는 이유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출발하

기 전, "부서에 생선 1마리씩 돌리겠습니다!"를 당당하게 외치고 만선을 기대했으나, 낚시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낚시를 시작한 지 5분 만에 근영 대리가 우럭을 잡았고 잠시 후 성민 대리, 지윤 대리도 놀래미 같은 물고기들을 낚았지만, 제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인당 10마리 정도는 거뜰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지속되는 무소식에 그저 세월만 낚을 뿐이었습니다. 자연산 회가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배에 같이 탄, 베테랑처럼 보이는 분들도 빈손인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선장님은 날이 흐려서 그런 거라고, 운도 중요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 위의 맛집입니다. 선장님께서 저희가 잡은 우럭과 놀래미로 회를 썰어주셨는데 탄탄하고 쫄득한, 찰진 식감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면 국물 덕분에 차가운 바닷바람에 얼어붙었던 몸이 싸악 녹았습니다. 배에 탄 모든 승객에게 떡볶이도 해주셨는데, 그것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게 낚싯배인지 맛집인지... 아무튼 '낚시의 낭만은 먹방에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배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낚시 포인트에서 낚싯대를 던질 때와 걸을 때 경보음으로 알려준다는 점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경보음 같아서 게임에 투입된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배를 탄 지 4시간쯤 지나, 바다낚시 게임에서 생존한 자와 탈락한 자 모두 선실에서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뻑뻑한 낚시 스케줄과 거센 바닷바람 때문인지 눈을 뜨니 어느새 육지였습니다.

재도전을 결심하며

저희는 5월쯤 광어 철일 때, 그리고 가을 주꾸미 철에 또 낚시를 하러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체험이었지만, 그리고 마음처럼 쉽지않은 낚시지만 망망대해 속 낚싯대를 드리우고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동료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작은 입질에도 함께 웃고 아쉬워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번에는 물고기를 잘 잡는 꿀팁을 섭렵하고 가야겠습니다. 부서 동료들에게 1마리씩 돌릴 수 있도록요.



Mini interview



강성민

인천본부 ICT운영부 대리

이번 낚시 멤버 중에 놀랍게도 저 혼자 배낚시 유경험자입니다! 다만 예전 배낚시 실적이 안 좋았던 덕분에 걱정을 한가득 안고 출발했는데, 막상 바다에 나가니 너무 설레더라고요. 특히 낚시 추가 바닥에 톡 톡 닿는 미묘한 감각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놀래미 2마리를 낚으며 배낚시 유경험자 체면은 지켜냈네요! 사실 낚시는 운빨인 것 같습니다. 같이 배에 오른 낚시꾼 아저씨들 중에 한 마리도 못 잡은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광어나 우럭을 잡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 조만간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박근영

인천본부 ICT운영부 대리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낚시는 처음이라 설렘과 기대를 안고 시작했는데, 우럭과 볼락, 광어까지 연달아 낚아 올리며 "초심자의 행운이란 이런 걸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끼를 끼우는 것도 서툴렀지만 동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사이 금세 익숙해졌고, 바다 위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힐링'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순간마다 터지는 환호와 즐거운 분위기 덕분에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 도전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 여러분도 이번 달에는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에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유현정

인천본부 ICT운영부 대리

시간이 꽤 걸리는 체험이라 찬 바람 맞으며 고생하셨음에도 괜찮다고 말해주신 홍보처 담당자님과 사진작가님께 감사합니다. 또, RE:CHARGE 코너에 신청해 준 근영 대리에게도 고맙습니다. 덕분에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동료들과 오래도록 되풀이할 추억을 만들어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쉽게도 유일하게 손맛을 보지는 못했지만, 물고기들에게 생존 기회를 준 셈으로 받아들이며 정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선장님께서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대신 잡아주고 싶다~" 하며 위로해 주신 덕분에 아쉬움보다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못 잡은 운이 오늘 산 로또 당첨으로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어복을 기대해보며 손맛을 느끼고 싶습니다. 또 함께하자~ 지윤, 근영, 성민아~



박지윤

인천본부 ICT운영부 대리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지만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낚시를 사보 활동을 통해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드넓은 바다에 작은 낚싯바늘을 던지며 '정말 잡힐까?' 반신반의했지만, 놀래미 세 마리를 연거푸 낚아 올리며 손맛과 함께 낚시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쌀쌀했던 4월의 서해 바다 위에서 동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은 따뜻한 라면과 갓 잡아 바로 썰어 먹은 회 맛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낚싯대를 드리운 채 저 멀리 보이는 섬과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 여유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날씨 좋은 날, 자연 속 힐링을 원하신다면 바다낚시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하루 동안 '박태공'이 되어본 박 대리였습니다!

과학자와 공학자가

같은 우주를
다르게 보는 법

우주 탐사 현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함께 일한다. 바로 과학자와 공학자인데, 사실 천문학자로 살아오면서 가장 낯선 경험 중 하나가 공학자들과 한 테이블에 앉는 일이다.

같은 목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같은 데이터를 보면서도 언제나 전혀 다른 것을 읽어낸다. 그 어긋남이 어디서 오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주 탐사의 역사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



©Keith Cowing et al. 2025. ©Getty Images

숫자

생존 조건 vs 연구 조건

공학 설계에는 안전 계수(Safety Factor)가 있다. 공학자들은 가능한 최악의 상황보다 몇 배 이상 여유 있게 설계하고, 검증된 방법론을 반복적으로 확인한다. 이는 구조물의 내하중이 오차 범위를 넘으면 파국이 오기 마련이며, 탐사선이 예상과 다르게 거동하면 임무가 끝나기 때문인데, 이처럼 공학자에게 숫자를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반면 천문학 논문에는 종종 30~40%의 측정 불확실도가 그대로 실린다. 공학의 세계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과학자에게 불확실성은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 현재 기술의 한계를 솔직히 드러내고 그 범위 안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과정 자체가 과학적 태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델이 데이터와 맞지 않을 때 과학자는 흥분한다. 이론이 틀렸다는 뜻이거나, 미처 고려하지 못한 물리 과정이 숨어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라는 문장이 논문의 핵심 결론이 되는 세계가 과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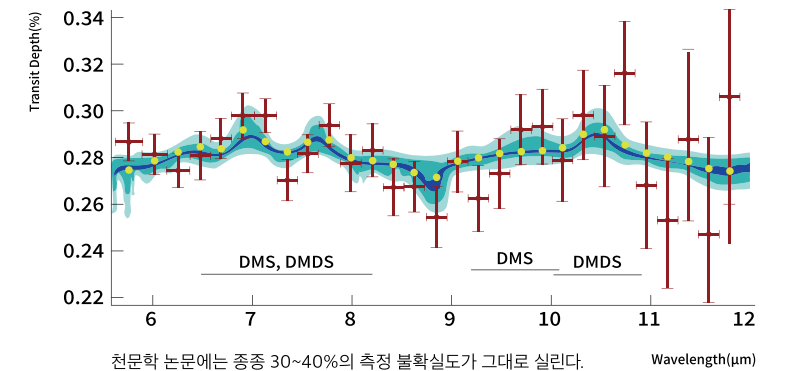
“
천문학자들에게
10% 정도의 오차는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

시간

10년의 계산 vs 46억 년의 해석

2004년 3월, 유럽우주국(ESA)은 혜성 탐사선 로제타와 탐사 로봇 필레를 실은 아리안 5호를 쏘아 올렸다. 흥미로운 점은 탐사선의 목적지인 혜성 67P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이는 공학자들이 10년 8개월 뒤 만날 자리를 미리 계산해 쓴 것이었기 때문이다. 로제타는 지구와 화성의 중력을 차례로 빌리며 궤도를 수정했고, 2011년에는 심지어 전력을 아끼기 위해 대부분의 기기를 끄고 2년 반의 동면에 들어갔다. 공학자들에게 이 10년은 그야말로 정밀한 계획과 검증의 연속이었으며, 어떻게 하면 이 탐사선이 10년 뒤 혜성과 정확히 만나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을 향해 모든 것이 수렴되어 있었다.

그러나 과학자들에게 그 10년은 전혀 다른 의미였다. 혜성은 46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될 당시의 물질을 거의 그대로 품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온도가 낮고 화학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 혜성 속 얼음이 태양계 초기의 조성을 고스란히 보존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과학자들이 혜성 67P에 탐사 로봇을 보내려 했던 것은 현재의 혜성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46억 년 전의 기록을 읽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공학자의 10년과 과학자의 46억 년이 같은 탐사선 안에 담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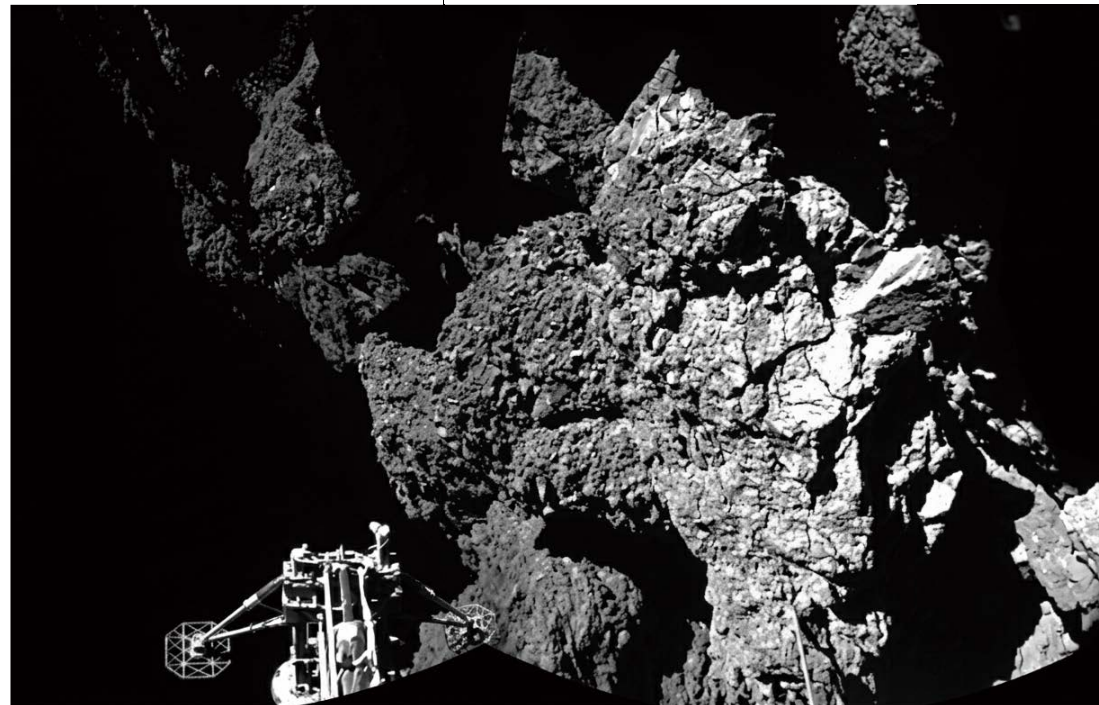
위기
수습 vs 발견

로제타가 혜성 67P와 성공적으로 조우한 뒤, 2014년 11월 12일, 착륙선 필레는 혜성에 착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필레는 예정 착지점에서 약 250m 벗어난 절벽 그늘 아래 비스듬히 내려앉았다. 역추진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두 번 튕겨 오른 끝에 태양광이 거의 닿지 않는 자리에 불안정하게 자리 잡은 것인데, 남은 배터리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60시간 남짓이었다. 이에 공학자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한 모든 기기를 작동시키고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기 위해 비상 시퀀스를 가동했는데,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은 자원을 최대한 쥐어짜는 것이 공학팀이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과학팀은 그 60시간 안에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필레에 탑재된 질량 분석기 COSAC가 첫 번째 착지 후 25분 만에 혜성 표면의 먼지를 흡입해 분석한 결과, 유기 분자 16종이 검출되었는데 그 중 4종은 이전까지 혜성에서 발견된 적 없는 성분이었다. 계획에 없던 착지 위치가 계획에 없던 발견을 가져온 셈으로, 공학자가 위기를 수습하는 동안 과학자는 그 위기 안에서 생명의 재료를 건져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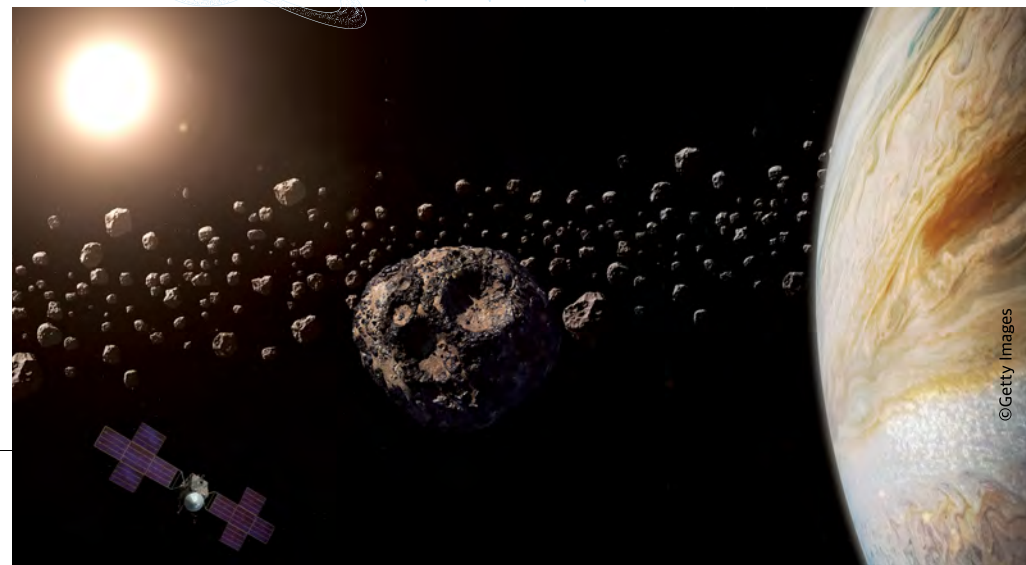
눈
제작 vs 방향

1990년 허블 우주망원경이 발사되었을 때, 주경에 미세한 결함이 발견되었다. 구면수차 오차는 2.2 μ m에 불과했지만, 이 작은 오차 때문에 허블은 흐린 눈으로 우주를 봐야 했다. 이에 1993년 우주왕복선 인데버호가 허블에 도킹해 교정 광학 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무려 우주에서 망원경을 수리한 것이다. 그리고 공학자들이 시력을 되찾아준 뒤에야 과학자들은 허블로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임을 확인하는 데이터를 쌓았고, 암흑에너지의 존재



↑ 아쉽게도 로제타 탐사선의 착륙선 필레는 예정 착지점에서 약 250m 벗어난 절벽 그늘 아래 비스듬히 내려앉았다. 그리고 공학자와 과학자는 서로 다른 일로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를 뒷받침하는 관측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한편, 2021년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은 처음부터 수리가 불가능한 곳을 향했다는 점에서 허블과 달랐다. 지구에서 150만km 떨어진 라그랑주 포인트 L2로, 주경 6.5m를 18개 조각으로 접어 우주에서 펼쳐 밀리미터 이하의 정밀도로 정렬하고, 중적외선 장비를 영하 266도 가까이 냉각하는 모든 과정이 단 한 번의 기회에 이루어져야 했다. 이는 공학자들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정교한 눈이었다. 하지만 그 눈이 무엇을 봐야 하는가는, 언제나 그래왔듯 과학자들이 결정한다. JWST는 지금 막 태어나는 별 주변의 원시행성계 원반을 들여다보고, 수십억 광년 밖 초기 우주의 은하를 포착하고, 외계행성의 대기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 지구 바다의 기원에서 우주 최초의 별빛까지—공학이 만든 눈이 향하는 곳마다, 과학은 새로운 질문을 건진다.



신호
유지 vs 해석

1977년 발사된 보이저 1호는 현재 지구에서 약 240억 킬로미터 떨어진 성간 공간을 비행 중이다. 반세기가 다 되어가는 지금도 신호를 보내오는 것은, 공학자들이 임무 초기부터 태양에서 계속 멀어질수록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고 방사성동위원소 열전기발전기(RTG)를 탑재한 덕분이다. 플루토늄-238의 반감기가 약 87.7년이라는 점을 활용해 수십 년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공학자들의 탁월한 선택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보이저 1호에 진짜 흥분한 순간은 따로 있었다. 2012년 보이저 1호가 태양권계면을 벗어나 성간 공간에 진입했을 때, 그곳의 플라즈마 밀도와 자기장 방향이 기존 이론과 달랐음이 밝혀졌던 그 순간이다. 이처럼 수십 년의 비행 끝에 도달한 장소가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점은 과학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공학팀이 반세기를 버티게 한 탐사선이, 결국 과학자들에게 이론을 고쳐 쓸 기회를 가져다준 셈이었다. “왜 성간 공간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가?” 이 질문은 지금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이는 공학자들이 차려준 밥상에서 과학자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두 질문이 교차하는 좌표

필레가 절벽 그늘 속에 쓰러졌을 때 공학팀은 배터리를 살렸고, 과학팀은 그 배터리로 유기 분자 정보를 건졌다. 허블의 거울에 결함이 생겼을 때 공학팀은 우주에서 허블의 눈을 수리했고, 과학팀은 그 눈으로 우주의 나이를 밝혔다. 보이저 1호가 성간 공간에 진입했을 때 공학팀이 신호를 유지했고, 과학팀은 그 신호로 이론을 고쳐 썼다. 매번 같은 방식이다.

이처럼 우주 탐사의 역사에서 공학과 과학이 완전히 분리된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공학이 가능성의 한계를 밀어붙이면, 과학은 그 한계 너머에서 새 질문을 기다렸고, 또 그 질문이 다시 다음 임무의 방향을 만든다.

즉, 두 시선은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지점에서 만난다. 인류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 그리고 아직 묻지 못한 것들 앞에서.

“
공학자들이 완벽히 설계한 보이저 1호가 출발할 때만 해도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과학적인 질문을 해결할지에 대해 예측한 사람들은 드물었을 것이다.
”



무엇이든 사랑하세요!

나의 인생 운동,
발레

ballet

글 김민혜 해외원전개발처 원전계약총괄실 대리

🦋 '취발러'가 되기까지

"발레를 했을 것 같아."

대학생 시절, 한 동기의 이 말은 제게 꽤 인상적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중고등학생 시절 재즈댄스와 걸스킵함을 배운 경험이 있을 뿐 발레를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춤을 배운 경험이 자연스럽게 자세에 영향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발레 코어' 스타일이 유행하던 지난해까지 취미로 사진 모델을 하면서 유독 발레 콘셉트를 제안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정작 저는 발레를 해본 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어설픈 발레 자세를 취하려니 스스로 민망함과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왕 이렇게 자꾸 오해를 받는 김에 제대로 배워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난해 10월, 발레핏 수업을 통해 발레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약 6개월 차 초보 취발러(취미 발레러)가 되었습니다.



점심 발레 모임은 지난 3월, 뜻밖의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진 김종식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오늘도 해냈다"라는 기분이 납니다.



사진 김종식



🦋 점심 발레 모임 시작하다

점심 발레 모임은 지난 3월, 뜻밖의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주 본사에서 발레 동호회를 운영하시던 대리님이 아트센터로 오시면서 저에게 발레 모임을 만들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마침, 저는 같은 건물 내에서 발레핏 수업을 듣고 있던 터라, 센터에 문의해 보니 일정 인원만 모임이면 점심 수업 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살펴보니 이미 발레를 하고 계신 분도, 관심을 두고 계신 분도 적지 않았고, 덕분에 비교적 수월하게 최소 인원을 채워 올해 3월 첫 점심 발레 수업을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인상 깊었던 분은 발레를 배우는 딸아이를 위해 함께 발레를 배워보려고 등록하신 차장님이셨습니다. 현재 점심 발레 수업은 주 2회, 월요일과 금요일 점심시간에 50분씩 진행됩니다. 사무실과 가까운 공간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해 운동할 수 있다는 점은 생각보다 큰 장점으로 다들 "의외로 부담이 없다"라며 즐겁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 발레로 코어 잡고 통증도 잡다

수업은 스트레칭으로 시작해 기본 근력 운동, 바(Bar) 동작, 센터 동작, 그리고 간단한 점프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발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중요한 근육은 코어 근육입니다. 발끝으로 균형을 잡은 채 상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아할 수는 없습니다. 첫 수업에서는 플랭크조차 버티기 어려워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가 들렸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은 대부분이 한층 안정된 자세로 동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오늘도 해냈다"라는 기분이 납니다.



발레를 하며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단연 자세 교정입니다. 대부분이 사무직이다 보니 구부정한 자세로 업무를 하는 일도 많고, 제 개인적으로는 허리 디스크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레를 시작한 이후 코어가 강화되고, 바른 자세를 의식하게 되면서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발레를 '취미'가 아니라 '인생 운동'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즐거움은 음악과 의상입니다. 발레는 리듬과 박자에 맞춰 움직이는 운동이라 지루할 틈이 없고, 자연스럽게 기분도 밝아집니다. 최근에는 성인을 위한 다양한 예쁜 발레복도 많이 출시되어 내 취향에 맞는 발레복을 찾아보는 것도 즐겁고, 꼭 고가의 제품이 아니라도 충분히 예쁜 선택지가 많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수업에 들어가는 날은 괜히 더 기분도 좋아집니다.

생각지 못했던 큰 선물은 '사람'입니다. 수업이 끝난 뒤 땀에 젖은 채로 서로를 마주하면, 이유 없이 웃음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버텼다"라는 묘한 동지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서먹하던 동료와도 바를 사이에 두고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말을 나누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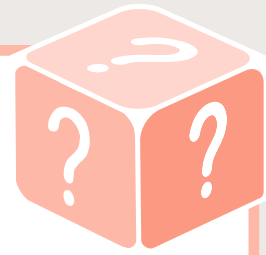
🦋 우아함 뒤 땀방울의 묘미

물론 발레는 보이는 것처럼 마냥 쉽고 우아한 운동은 아닙니다. 근육통은 거의 항상 따라오고, 생각처럼 몸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특히 코어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면 발목이나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어 꾸준한 기초 근력 운동도 함께 필요합니다. 발레복 또한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라인을 확인하며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중요한 운동이니 만큼 발레복이 꼭 아니더라도 요가복이나 필라테스복처럼 몸의 움직임이 잘 보이는 복장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수업 중에는 모두가 본인의 동작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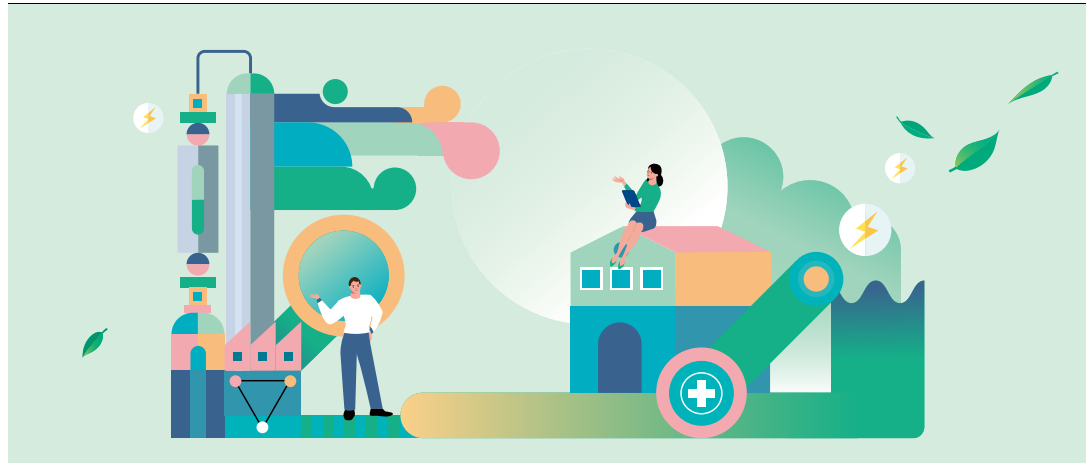
🦋 삶에 우아함을 더하는 작은 발돋움

아직은 이름도 없는 작은 모임이지만, 저희는 꾸준히 연습을 이어 나가며 언젠가 작은 공연을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피치를 닮은 사랑스러운 선생님의 지도 아래, 조금씩 성장해 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의 짧은 여유 속에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잠깐의 우아함을 더하는 시간. 발레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즐겁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혹시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볍게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재미있는 낱말 퀴즈



〈KEPCO〉 5월호를 읽고 독자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독자분들 가운데 10명을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맞춰주세요.

Q1 □□□ 는 단순히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계량 장치에서 나아가 스마트미터와 양방향 통신망을 결합한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다.

힌트 'TRANS : MISSION'

Q2 2004년 3월, 유럽우주국(ESA)은 혜성 탐사선 로제타와 탐사 로봇 필레를 실은 아리안 5호를 쏘아 올렸다. 이 탐사선의 목적지는 □□ □□□ 다.

힌트 'SCIENCE'

Q3 □□□ 은 Short(짧은)와 Socialing(어울리기)을 합친 신조어로, 잠깐 모였다가 가볍게 흩어지는 일회성 모임을 뜻한다.

힌트 'TREND'

참 여 방 법 QR코드 스캔 후 답변 제출
접 수 마 감 5월 20일(월)까지
이벤트 상품 신세계 상품권 2만원권
선물 발송일 6월 10일경



이벤트 참여하기

※ 2026년 〈KEPCO〉는 리버스 형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책을 뒤집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365일 24시간 전기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



365일 24시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
대형정전이 연간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나라
태풍 피해에도 24시간 내 복구율 99%를 기록하는 나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력선진국 대한민국 뒤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시시대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전력품질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전력이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의 전기품질은?

정전시간은 주요 선진국 대비 163~731% 수준으로 월등히 낮고
정전 횟수 또한 가구당 연간 0.1회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품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